



전북한 정치 사관 학교 교장 장학봉.

나는 1917년 4월 6일에 원동변강 수도 하바롬  
스크 시에서 탄생하였다. 당시 아버지는 하바롬스크  
역전에서 노동자로 일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장공방이는  
당시 다른 아들 3형제와 같이 원동변강 연해주 변천시에는  
구역 노보끼예프스크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당시 나의 할  
아버지 집에는 또 할아버지 형분이 계셨던바 그이름 장풍인  
이라고 불렀던바 나의 장할아버지 형이었다. 내가 섬을  
차리고 보니 할아버지 이름이나 또 큰 할아버지 이름이 전북  
다 적으란한 벼슬칭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건바, 공방은 공업  
을 지도하는 사람이고, 풍인은 장농제령하리 북하계프스나 시인으로

은  
해명들 하시였다 하여 큰 할아버지는 유식한것만 사실  
어였다 때문에 동리아이들을 용여놓고 천라공부를 식혔던  
바 나도 6세 되는때부터 큰 할아버지에게서 구학 천자  
하늘천, 따지, 감을현, 누를황, 집우 집조 를 배우고 그다  
음해 7세 때부터 신학 천자 - 그것은 좀 달르게 이르는데  
- 하늘천, 따지, 날일, 달월, 하완풍, 구름문, 비우, 어울로 등의  
서치로 공부하였다. 천자 두권을 필하고 1926년 부터 한문인  
소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러시아에 왔는가? 아버지의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나의 할아버지 당대에는 함경북도  
부령읍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았는데 큰 할아버지도 거기서  
단 집에서 영간 노천이 살았으며 그집에는 자식들이 없었으며  
큰 할아버지는 한을 서당에서 훈장질을 하였다고 하였다. 조선  
이 함방되기 직전에 나의 할아버지 장승국 이와 둘째 아버지  
장용국은 조선 정부군에서 병정사리를 하다가 조선이 함방되니  
달당 지휘관의 지도하에 일본 정권에 복종하지 않고 밀레를 반  
대하여 투쟁하면서 만주에가지 밀며 들어왔다가 러시아  
영토에 넘어왔다고 하였는데 그의 제일큰 재장은 흥범도  
장군이였다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아들 4형제 - 장승국, 장  
용국, 장성국, 장세준 - 를 두었으나 만무르러리 형제가 러시아  
로 월경하였기 때문에 1912년에 원동변강 연해주에 집에  
있는 아들 형제와 할머니와 함께 이주하였다. 큰 할아버지는 그  
후에도 약 10여년간 계속 부령에 계시다가 큰 할아버지  
세상 떠나신 다음 1922년에야 동생을 찾아서 러시아  
로 넘어왔다. 러시아에 망명한 할아버지 일가는 연해주  
북부시베르 구역 노보키예프스크시 (조선말로 연추영)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다만 나의 부친만 집을 떠나 하바롭스크 시에서 일하였다. 1919년 조선에서 독립만세 차전이 있는 뒤에 원동에 살고 있던 한인들은 흥범도 독립군대를 더 강화하여 조선을 해방할 것을 계획하고 그 군대를 더 강화하였다. 그것은 이제 모스크바에서 혁명이 승리하였으니 이제 붉은 군대가 원동에 나오면 힘을 합쳐서 조선을 해방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원동에서 소비에트 제도를 수립하는 전쟁에서 흥범도 장군, 채예 장군, 한창걸 등 대장들이 지도하는 한인 빨간지산 부대들이 많은 공로를 세웠지만 일제와 백계를 원동지역에서 몰아낸 다음 한인 빨간지산 부대는 전북다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이 당시에 많은 한인 전후원들은 조선 해방에 대한 열원의 성취되지 못한 것을 애절하면서 눈물 흘린 다음 일부는 안주로 도주 넘어갔다.

나의 어머니 리마리나 (당시 러시아 극적으로 일적한 사람은 전부다 공민증을 받을 당시 러시아 이름으로 교환하게 되었음)은 아버지가 빨간지산 부대에 증병되었을 때 나를 데리고 나의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 - 연후영으로 이사하여 갔다. 1923년에는 할아버지 집에는 전부다 가정은 아들 나형제 할아버지 2명 할머니 11명, 전부다 함하여 약 15명 식구가 살고 있었다. 그 후 1923년에 큰 할아버지가 별세하시고 1925년에는 할아버지가 65세를 일기로 세상 떠났다 할아버지가 도라가신 다음 3년상을 치르고 아들 나형제는 전부다 사망으로 흐허지게 되었지만 나의 아버지는 우리 오누이와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하바롭스크로 가고, 둘째 아버지는 소비바스크 시로, 4재 삼촌은 블리보브도크 시로

가게 되었다. 하바롭스크에서 인민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여  
1931년에 차감하고 블라디보스토크 어산업 학교에 가서 3년  
공부할 대신에 1년만 공부하고 하기 실습당시 배를 타고 나호드  
까, 유단재, 뽀뽀우 섬등에 돌아 다니다가 실습이 끝나자  
배 끝은 고생을 견디지 못하여 집에 도망쳐 온 다음 하바롭  
스크 고급중학교에서 다시 공부를 계속하였다. 하바롭스크 고급  
중학교에는 조선에서 들어오신 많은 지식층 인사들이 문편을 잡  
고 일하시었다. 그중 대표적으로 계봉우, 백성환, 조병희, 박정규,  
리노림, 리정림 등이며, 역시 조선에서 공부하시고 어상 선생님들보다  
씩 먼저 들어오신 김동운 선생은 함상 학생들의 사랑을 받으시  
었다. 나는 이 학교에서 9학년년을 졸업하고 강제이주 당한 후  
악쭈빈스크에서 고중을 포어를 졸업하였다. 한인들이 강제  
이주 당할시 어상에 열거한 선생님들과 그 가정들은 대단히 비참  
하였다. 우리 집은 어당시에 하바롭스크 역사 박물관 앞  
에 있는 풍거돌이라는 코르크 박물관에 있었다. 그런데 1937  
년 8월 27일기 불어 윈 한인들이 전부다 화물차를 타고  
어딘지 물어봐도 모르면서 때시간 주어로 섯쪽으로  
계속가는 것이었다. 9월 초 하루가 되자 우리 고중은 예년  
처럼 개항은 하였으나 타지역에서 와서 함숙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전부다 모지 않아 강당은 텅텅 비었다. 당시  
윈동 지역에는 고학년 고중이라고는 전부 3 끝에 밖에 없은  
고중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뽀씨예는 구역 코라쓰기노 등)  
우리 고중에는 학생이 천여명도 잘 되었다. 인민학교를 제외  
한 많은 학교 - 5학년불어는 2조 이상 3조, 4조까지 있었다.  
지방들에는 각 읍들에 인민학교나 초중밖에는 없었다. 우리들  
은 한인들이 함방을 모르면서 계속 밤낮 실패가는 상황에  
대하여 불리인 <sup>(우리의 선생님들은 대답하기를)</sup> 그들은, 국경 연선에서 살던사람들을 이주시키한다  
고 대답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던 차에 9월 21일, 지금 기억되는 바 월요일이었는데, 고려공학교 14세 이상 전체 학생들과 교원일동은 하바롭스크에서 제일 큰 영화극장 "기간트"에서 중대한 문제로 회의를 일으키 전부터 거기에 뭉치라고 하였다. 시간은 오전 중 학습을 끝내놓고 오후 나시에라고 하였다. 우리들은 무슨 좋은 새 소식이나 있다가 생각하면서 나시 정각에 영화극장에 찾아가었다. 정각 나시가 되자 무대에는 시당위원장, 시인청위원장, 시소베트 위원장 3명이 몰려와, 시당위원장의 말을 시작하면서, - 오늘 이 모임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련 내 각의 1937년 8월 21일부 결정 "원동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전부 여주식하여 카삭스한과 중앙아시아에 보낼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한인 공청원들과 한인 당원들의 연합 열성자 회의 개최를 선언한다고 하였다.

다음 계속하여 그는 상기 결정을 남독하는 것이었다. 이날 영화극장에는 우리 고종 학생 교직원뿐 아니라, 하바롭스크 시내에 있는 많은 기관들과 그 기관들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한인들은 다 모였더라, 하바롭스크 원동변강 고려인공산대학 전체 학생교직원, 원동 한인 출판사, 라디오 방송국, 시내 각 당 정권 기관, 내무성 제청, 각종 사법기관, 상업기관 각 생산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직원들, 종합하여 거의 천명이나 모였었다.

장내에서 시당위원장의 당중앙과 중앙정부의 결정 남독이 끝나자, 그 결정을 잘 집행함에 있어서 장내에 몰인 한인들의 방조를 받을 목적으로 연합공청-당 열성자 회의를 소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의 반인인성, 각 민족들의 평등권에 대한 레닌적 민족정책의 위반, 각 민족의 자유적 거주지 선택에 대한 권리 위반 등에

대한 질문과 그 결정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반대 토론이  
 전절하게 나오면서 부분적 언변가들은 본대회에서 당중앙과  
 중앙정부결정을 반대 항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창  
 내에 몰인 관중들에게 호소하였다. 이런 분위기에 황당  
 한 시당위원장은 언변가들의 출연을 중단하고 무대막을  
 닫으면서 열성자 회의를 끝내겠다고 하였다. 창내에 몰인  
 한인 언변가들은 당중앙의 물건에 대하여 분노를 참지 못  
 하며 비판하고 있었다. 몇분 지나 창내에는 벌써 영화구경  
 관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열성자 회의에 참가하였던 한인  
 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 하바롭스크 고중은 1935년에 준공된 원동에서 드  
 기하 다른 고중들에 비하여 자랑할 만한 모범적 청사였다  
 이시기에 있어서 원동에 살고있는 한인들의 문화는 최고봉에  
 달하였고 전세기에 하나밖에 없었던 순전한 한인 사범  
 대학을 원동한인들은 가지고 있었다. 나는 당시 고중 학생  
 으로서 그 사범대 학의 제일기 최우등생들이인 강진태, 박  
 예브도끼야 디리드롭나, 선생과 박니콜라이 화학선생  
 에게서 글을 배울수있는 명예를 가지었다. 그러나  
 그후 강진태 선생은 기계계에 손에 잡혀 유형지에서 세  
 상 떠났다. 나는 이글수 없는 우리 하바롭스크 고중에 오  
 번이나 강레 비루 이룩에 찾아가보았던바 현재 그 청사는  
 하바롭스크 시 젊은이들의 체육전문학교로 리용되고 있다  
 나의 정답은 동창생들과 한책<sup>상</sup>에 앉아서 공부하던 그 광범  
 하고 아담진 강실들에게 행복하였던 한때를 가슴앞을  
 정도로 회상하며 보기도 하였다. 왜 시간은 계속 앞으로만 가는  
 지 나는 매달리게 원망하였다.

7  
나는 집에 돌아와서 금일오전에 "기간츠" 영화극장에서 소집되었던 회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 한 다음 하바롭스크 시내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9월 23일까지 전부 여기서 떠나서 중앙아시아로 가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벌써 12시경에 내무원 2명과 군인위원회 대표 4명이 이동거뜰에 살고있는 한인들을 불러놓고 무슨 명령서를 읽어서 지금 각 조선인 집들에는 난당판이 붙어났다고 하면서 특히 저녁을 먹고 3촌집에도 가보고 허탈이 아르바이트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하였다. 나는 저녁을 얼큰 먹고 얼지 않은 끈에 살고있는 삼촌집과 김희환이네 집에 가니 거기서도 벌써 내무원들이 와서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짐들을 꾸릴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부모들과 내일 할 일들에 대하여 상논하였던바 우선 아버지는 직장에 가서 회적주속을 한다는 전가족에 대한 இரு장악금을 하고 집에서 짐을 꾸려야 하였다. 그중 삼촌반 학생들은 교장선생의 지시에 따라 아침 삼학년시간까지 학교에 집합하게 되었다. 나는 아침에 책가방 없이 8시 정각에 학교마당에 도착하니 전체 학생들은 전부 마당에서 야단 백석하고 누구도 강당에 들어가지 않았다. 벌써 연인반 학생들은 한명도 학교에 오지 않았다. 학생들 속에는 교무주임 유선생이 서고있다가 고학년 학생들이 거미다 집합된것을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다 어둡하여 가게 되고 교재와 직관물들을 가지고 가야 되기때문에 이것들을 꾸러(포)야 되겠다고 하시고 직접 분류하여: 누구누구는 도서실에 가고, 다음 누구들은 물리 실험실, 화학 실험실, 교원실 등으로 말하시며, 다음 십여명은 이름을 부른다음 교원들의 주택들이 있는 세로노바 거리로 가서 교원들 가정은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하시고, 교무주임 선생은 지난밤에 우리의 남자 선생님들은 전부라 체포

하여 개개에게서 대령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슬프게 복노아 울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울었다  
우리 십여명 학생들은 교복폭업 선생을 따라 세로노바 거리  
[한인 하바롭스크 교통 낮은 청사. 이 낮은 교사를 위해서 전부  
교원들의 사택으로 변경됨] 교원들의 사택에 도착하니  
집들을 전부 뒤집혀지고, 헝크러지고 사람들은 울고 있고 복분적으로,  
노인층은 심장마비로 일어나 자리에 눕어 앓고 있었다. 구급차  
출발할 때가 되기는 하였으나 사람들의 우름소리는 계속되었다.

어떤이 바로 기간트 영화극장에서 회의가 열리니 다음 개개에게  
일꾼들이 이 교원사택들에 와서 장밤을 가해우색을 하고 살림  
사치집 책장들을 번져버려놓고 주인들은 몽땅 체포하여 갔던  
모양이었다. 나는 우선 내가 제일 존경하는 김도운(김일)선  
생의 사택에 들어갔다. 그집에는 아들 형제와 딸 형제 사모님과  
그이의 어머니가 계셨다. 아이들중 제일큰 딸 딸 웨라가 13세  
였고 그 아래로 열살, 여덟살, 다섯살 세살이었다. 김일선생은  
그당시 50세 가량이 되고, 사모님은 40세가량이 되며, 장모는  
60세가량이 되었다 이런 형편에 김일선생이 체포되고 보니  
사모님은 심장마비증에 걸려 누었다. 이러한 형편에서도 내일  
문제는 전부다 떠나야만 되었다. 그런데 누가 집을 꾸리고 누가  
시원위원회에 가서 이주일들에게 주는 장악금을 타내야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집안에 있는 짐짝들도, 책장도 가정도 전부다  
뒤집어 놓아서 항방 절차를 찾을수가 없었다. 나는 우리와  
같이간 학생 한명을 데려다 사모님과 할머니가 가르치는대로  
집을 꾸리게하고 큰딸 웨라는 어머니의 공인증까지 나와 함께  
시원위원회에 가서 장악금을 할것을 약속하였다. 미우란에  
살고있던 선생님들의 형편은 거기나 다 한가지였다. 다만 그화  
이른 늙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없었을 뿐이었다.

9.  
김일 수학 선생은 고종에서 인기있는 선생이었다. 선생은 수학을  
너무나 잘하여서 1935년 여름 하바롭스크 수학 선생 콘콜에서  
일등 상을 장려하고 원동 변경 대회를 걸쳐 모코바 전국  
대회까지 참가하여 높은 국가 표창까지 받았었다. 선생은  
배바주는 과묵에서 단 모범적인 것이 아니라 의복차림과 걸음  
거리 지어는 과묵 설(병)시 발음하시는 말투까지 모범적이었으  
며, 언제든지 입에서 던져진 단어를 반복하는 법이 없었다.  
참 천재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알뜰한 스칼린 독재에게게 해에  
의하여 학살당하였다. 선생의 가정은 어쭙 다슈켄스에 와  
계셨는지, 사모님도 할머니도 도라가시고 인제는 2년전에 웨라  
도 사망하고 다음 그 아래 아이들과 송군들이 살아가고 있다.

조국이 남아주었고 교양교육하여 천재적 인물로 알려진 선생  
들을 스칼린의 독재주의 무법천지에 의하여 처단 당한 다음  
하바롭스크 고종은 기본 세대주를 잃은 고아처럼 12명(명)의 너  
교원들과 같이 유령지 카사흐 공화국 앙주빈스크에 도착하였다.  
주 소재지 앙주빈스크에서 160킬로 예타 떨어진 국영 북쪽 경리  
야르부하데드란 명칭 부게트사이란 촌락에 학교를 열고, 교원  
들은 그 부족한 수사자를 러시아인, 카사흐인 새로 대학들을 나온  
고려인 교원으로 보충하고 열개 월전까지 즉 9월 20일까지  
조선말로 공부하던 고종이 11월 초순부터는 러시아어로 공부하  
게 되었다. 이렇게 되고보니 부분적으로 남은 어린 교원들과 종전  
불어 공부하던 학생들은 언어가 바뀌어서 큰 고생을 하였다 그대  
신 러시아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우리와 같이 이주당한 학생들은  
불행중 당행이었다. 부분적 교원들 - 강진해 선생, 허벌트르 등  
선생과 강제이주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매우 많은 기술자  
민체리들을 게게베는 체포하여 갔다.

이곳의 유일한 흥행수단은 자동차였으나 겨울에 눈보라가  
 터지면 자동차길에 눈산이 가로막혀 흥행이 불가능하기에  
 그때에는 파리에 말이나 소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약대를 세워가지고 짐들을 운반하였다. 이곳은 우랄강 상류  
 부젠사이란 강이 하나 있어 그강역에 적은 버드나무들이 섞여  
 반사막 지대인고로 비가 전혀 오지 않아 평지에는 나무 한  
 대 볼수없는 반경상과 벌판이었다. 겨울에 적산되었던  
 눈이 녹아 내리는 동안 땅에 습기를 주어 그 벌판에 풀이 무성  
 하여 목축을 위해 목축산업이 주민들의 기본 직업이다. 봄에  
 무성하였던 풀들도 6월이 되면 전부 말라 버티는바 5월전까  
 지 그 풀들을 베어 마초로 저장하고, 그가축들이 눈 땅을 밟아서  
 각터놓았다가 화목으로 이용한다. 이곳 유목민들은 가축무리를  
 몰고 풀이 좋은 목장을 따라 이동하여 가면서 살기 때문에  
 약대 등에 짐을 만드는 천막과 가정물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실고  
 다니면서 전촌락이 여러 단니면서 사는바 봄에는 북으로 이동  
 하면서 살고, 겨울에는 남으로 이동하면서 살기 때문에 늦은  
 가을에는 자기가 볼래 살던 촌락에 오게 된다.  
 이곳 기본 인민들의 식량은 절반이 육부치고, 절반은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고기항에 끈린 떡국이다. 물고기는 전혀 먹지 않  
 거나 그렇지 아니면 극히 드물게 맛이나 보는 격이다 채소도 아  
 주 적게 먹으며, 감자를 먹으나 그도 드물게 먹는다. 이곳 풍속은  
 손님들을 아주 친절하고 축하하게 접대한다. 기본 주민들의 안성은  
 아주 유하고 너그럽다.

나의 부모들은 강제이주 그 이듬해 봄에 하뉴켄스에 어주  
 하여 왔던바 그것은 악루빈스크에서는 농사조건이 기본  
 적으로 없어서 때문이다. 나는 부모들이 떠났으나 학교와 같이  
 도착한곳에 떨어져 있으면서 1934년에 고종을 마감하고

그해 부모들을 따라 하슈켄트주 중실 칩 구역 볼로 드브  
 평성 협동조합에 갔다. 하슈켄트 국립 종합대학에서 공부  
 하러 하였으나, 하슈켄트 시내에는 한인-이주민들로 받지 않았  
 기때문에 협동조합에서 부모들과 같이 버농사를 하였다.

1940년에 하슈켄트 대학들에서 한인 학생들을 받아들  
 았기때문에 나는 중앙아시아 국립 종합대학 려사학부에 입  
 학 시험을 본데 입학하였다. 일확년을 필하자 독노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 포고가 내리자 각반 학생 수자는 절반어삼  
 줄어 들었다. 남자 학생들은 전부 전선으로 나가는관인데 한인  
 남학생들은 동원하지 않았다 나는 시군사동원부에 가서 전선에  
 보내달라고 하니 상부지시에 의하여 고쳐인들은 동원하지 않  
 기로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 저렇하여 일확년 진급시험은 쓰레스나  
 강실에 가던 여학생이 구활어상이고 그날어리는 고쳐인들과 불  
 자들별이어서 여성들어나 교원들을 보기 부끄러웠다. 교원들중에서도  
 55세 미만 되는 남자들은 전선으로 나갔다. 부분적 여학생들도  
 자원병으로 전선에 나갔다. 가을이 되어 다시 공부하러 학교에  
 왔으나 약 주일간 공부하고 전체 학생들을 농촌 협동경리 전야에  
 내 보내며 목화 뜻기를 하게 하였다. 전야 밤이되어 "모든것은  
 전선을 위하여, 모든것은 승리를 위하여" 라고 쓴 표어와 "목화는 화  
 약을 만들 때, 군인들의 의복을 짓는 전락품이다. 모든다 승리  
 를 위하여" 라는 등 표어들어 걸여 있었다. 전부다 전선에 동원  
 되고 보니 무겁은 일을 할수있는 역군은 다만 한인 대학생  
 들이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뽕혀 다니며 가장 무겁고 힘든  
 일들을 하였사도 군중들 앞에서는 항상 조연스럽었다. 약 달  
 반동안 목화축에 동원되었던 학생들은 전부 대학에 돌아와  
 강의를 듣게 되었으나, 그것도 늦어선 강의를 듣고 오지못하는

역전에 나가 서북전선(지역에서) 지역에서 <sup>있.</sup> 강력히 소개하여  
 모든 공장 기계 시설품들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이 작업에는 교원들도 동원되었다 하차작업이 돌리고 강력히 차  
 량들을 내어 다시 전선으로 보내야 할 때에는 우리 하차작업이  
 그 이른날 아침 4시, 5시 까지 계속되고, 9시에는 누강  
 하차 가야 하였다. 부코라이나와 백로시아가 파노준대에 전  
 령 당하자 이공 대학들의 유명한 학사, 박사 아카데미코들이  
 전부다 하우겐트에 몰려 들어있었다 나는 그전까지는 교과서 풀  
 제에<sup>서</sup>한 쓴 이름만 읽어 볼수 있었던 유명한 력사학박사  
 고쓰민쓰끼, 도도노부, 하에플, 바실레워치 등 박사들을 직접  
 만나보게 되었으며 그들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서쪽에서 일해  
 온 피난민 박사들중 어떤분들은 시내에 사택이 없는관계로 우중  
 일간식 역전대기실에서 자기가 밤을 베개 삼아 베고 자고서도 아  
 침이던 대항에 출근하곤하였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동안 수  
 차 기계제베에서 나를 불러갔다. "알라<sup>자</sup>년 정치반전부 제5호  
 실에 도착하면 나보고-"조선에 일하러 가야된다고"하였다 그리  
 면 나는 대답하기를-"일제 현명들이 그렇게 심하게 검열  
 한다면 내가 어떻게 조선으로 정찰병으로 갈수 있겠는가?"  
 하면서 수차 거절하면서 서북전선에 보내달라고 빌었다 그 결  
 과 나는 안가고 나의 동향생 신봉남, 김예필 등 7명이  
 따유겐트 여러 대학들에서 떠나 모스크바에 가서 2년동안  
 정찰기관 학교를 필하고 북한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1944  
 년 초에 전부다 개별적으로 도착하였기 때문에 그 행방들을 서로  
 알수 없었다. 그러나 반정함당이 아주 1년일하게 조직된 선  
 내에서 정찰해동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어나온  
 총 7명이 다 체포되며, 평양감옥에 8명, 청진감옥에  
 김예필을 따로 감옥고 8.15 광복절을 맞아라고 일제는 후방하였다.

평양 감옥에 투옥되었던 신봉남 이하 9명은 8.15 직전에 전부다 사형하고, 해방후 감옥내 심문 물건들에 의하면 신봉남이든 평양 원산 사이 통행중 기자회견 체포되었던바, 1945년 8월 2일에 6명이 일시에 고살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다음 1년이 지난 1946년에 청진감옥의 재포에 의하면 김예림이서 일어난 체포되면서 모스크바 수감시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이 공부하였다는 것을 알해준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때문에 김예림은 일제가 사형하지 않고 목숨을 살려 앞으로 계속 리용할 목적으로 그를 청진감옥에 잡아 넣고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 내막을 모르고 소련 군대는 청진을 해방함과 함께 청진호 문물 열게 되어 그 안에서 소련 말을 잘하는 최후한병이 나오니 그를 총역원으로 위대하게 리용하였다. 그후 모든 역사가 해방되자 김예림은 소련 가서 거기 체포되어 모스크바에 투옥된<sup>다음</sup> 1947년에 군사재판 관할에 의하여, 당시 소련 형법에 사형법이 없었기 때문에 최고형 20년을 받고 시비리야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사형하였다.

나는 1942년에 겨우 대학 2년을 마쳤하자 군대복무에 가지 아니한 남자 대학생들은 불주자들을 제외한다든 전부 동력 발전에 군사동원부 1명령에 의하여 파견되었다. 이 당시 현역 청년들은 대부분이 서북전선, 북북전선 부근으로 채로는 철로 시설과 철교시설에 동원되었다. 우리 대학에서 동원된 학생들은 우즈베크한에 부속되는 동력 보충을 위하여 우력발전소 건설과 한광들에 파견하였다. 나는 철길 강 우력발전소 건설에 동원되어 2년간 일하고 1944년에는 제대되어 부모들이 계신 현등조합에 들어가 현등조합의 문화부장

결 원인 학교 교원 일을 하면서 대학에는 통신학부에 14  
우등하여 하기에 검정시험 수험생 법으로 진급시험을 주기로 하  
였다. 이방법으로 3학년 진급시험을 주고 1945년에는 대학  
에 다시 가서 정식으로 공부를 시작하였을시 군사동원부에서  
호출장이 내렸다 이번에는 조선에 가되, 정찰 의무 수행이  
약이라 조선에 가서 25군단 소속으로 군대 복무였다, 나는 원동  
연립 나의 고향 땅에 도착하여 25군단에 속한다음 소련군  
대가 벌써 해방하여 놓은 북한 평양에 도착하여 군단  
정치부에 속하여 홍익원으로 있다가 1946년 1월에 황해도  
신천 소련 사령부에서 홍익원을 하면서, 소련 25군단 1인전사  
령부의 지시에 따라 호지개혁, 산업극대화 정책등을 군인인  
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그후 전근되어 평양에 올라가  
내각 중앙지도 간부학교에 가서 정리부교장 겸 교원으로 1949  
년까지 있다가 1950년 6.25 사건과 관련하여 인민군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치부 지도원으로 대전까지 나갔  
다가 다음 1950년 8월 1일 불어 인천 해안 방어 여단  
정치부장의 직분에서 복무하였다. 이시기는 인민군대에 한하여서  
사상 결판의 시기였다. 인민군의 남진은 낙동강 계선에서 완전  
히 좌절되고 보충병은 전혀 없는 형편에서 부산에 상륙한 유엔군  
은 낙동강 계선에서 완강한 방어를 하였던바 그들은 육해공군 3  
개 병종의 긴밀한 협동적 군사 전략 전술적 동장으로 인민군대 부  
력과 공화국 경제력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런 형편  
에 처한다음 김일성 최고사령관은 가장 훌륭한 명령을 각 군  
부대에 하달하였던바 그 내용은, 조선 인민군은 전투임무 수행에서  
상관이나 상부의 명령을 조국의 명령으로 인정하고 일부도 회각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상부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자기 마음대로  
회각하였시에는, 상관은 그 죄책에서 용살하여야 한다. 이 명령대로

15.  
한다면서 남한에 침범한 인민군은 전부 총살받아야 하였다. 명령은 실천할수없어 혹독하였으나 인민군내 정치일꾼들은 그 명령의 실천을 위하여 엄격한 당정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였다 인민군 각부대 구분대 등에서 하부발단 분대에 이르기 까지 당-민청회 들을 열고 결의문을 채택한후 그 결의문 아래글에: "내가 이 엄숙한 결의문을 위반하였치 나는 조국의 엄벌을받겠다"-라고 쓴 글귀 아래에 서명들을 하였다. 전후원들은, 특별히 해안 방어전투원들은 바다로 불어 드리키는 적을 맞지 않고 후퇴할시 자기 지휘관의 총에 맞아 죽게 되었다. 이런 형편에서 유엔군은 인천 상륙을 계획하고 한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상륙에서 나흘 또는 사흘들은 벌써 8월 말일까지 불어 날은 많고 있었으나 보충병이나 보충 전후기재는 전혀 도착하지 않았다. 벌써 9월 초순불어는 매일 상공에서는 수백대의 비행기가 돌고 있었으며, 바다에서 수백척의 크고 작은 군함들과 어뢰정들이 바다를 짝 돌고 있었다 이때 인천 여단 군사 전후력이란 포병 2개 대대 뿐이었는데 한개 대대는 윌리도에 배치하고, 한개 대대는 인천 중포 포색들에 배치한다음, 한개의 경비 중대를 해안 연선에 배치한 외 한개의 통신중대 약 30명의 처예 통신수들이 있고, 다른 함포부 성원 김창희 참모장을 위수로 하여 15명 가량, 정치부 성원 연락 병준과 작함하여 약 10여명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에게는 단크 한대도 없었다. 보조적 전후기재라하면 화물차 2대와 지프 승용차 한대가 있었을 뿐이었다 유엔군 상륙을 기류일을 알리던 여단장 리청봉소령은 약 2개 대대 병력을 이끌고 군산 방향으로 해안 방어 배치를 위하여 떠난다고 하면서 떠난후 영영 전후소식이 되었을바 인민군의 전반적 후퇴 어후에도 그와, 그가 인솔한 전후원에 대하여서는 전후소식이 되고 말았다. 정확한 소식은

모르나, 유엔군 정보를 철회한 일부간부들이. 이 야기에 의하면  
여형승 소장은 군산까지 도주하지 못하고 포공에서 유엔군  
에게 포위되어 전사하였다고 하였다.

우리 인천여단은 이상의 명령을 가지고서도 최고 사령관의  
명령에 의하여 자기의 복습으로 인천을 방어하려고 하였다.  
벌써 9월 10일拂어 상륙작전을 앞세운 예비력 공격은 시작  
되었던바 연 5일간, 밤낮 공중으로 항공포격, 바다로부터 함  
포 사격이 계속된 결과 울리도의 표면 면적은 100 프르르  
포함파 폭탄의 폭격으로 인하여 땅이 1메타 깊이로 완전히  
뒤 번져지게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은 휴향소라도  
만들수 있던 그 울리도, 순전히 각종 과실 나무로서 엉켜진  
순전한 인공적 공원, 그 아담스럽게 드리웠던 푸드농이들, 그  
아름다운 별장들은 유엔군의 5일간 함포, 항공사격에 의하  
완전한 사하라 사막처럼 (비현실적인) 벌판이 되어 버리고,  
우리 포대대도 그 흙 밑에 전후원들과 함께 영원히 매장되  
여 버리고 말았다.

나는 뒷산에 위치한 전후지휘소에서 전에는 예상도 할수없는  
광경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손님처럼 내려다만 보았다. 이것의  
바로 1950년 9월 15일 아침 7시가량이야 되었다. 유엔군의  
상륙은 우리전후원들이 적함이 완전히 꺾절된다음에 시작되  
었다. 북분점으로 진북하여 있던 전후원이 몇곳에서 자동총사격을  
하였으나 그것은 달걀로 바위를 때리는 격이었다.

나는 큰 유엔군 함선들이 바다가에 접하여 뒷물을 조작할  
번 거기로 불어 단크들이 저절로 나오며, 전후원들로 실은 적  
문 배들도 바다라에 접근하는것을 내려다 보면서 지휘소에  
다른 기관들과 연락병 선명절이와 함께 뒷산을 넘어 후회  
할것을 계획하은 아태에 지시를 주었다 나는 어당시 여관장  
대리로 있었다. 전종일 산기타, 신장군 연변 오솔길들로서

도보로 김포·비행장까지 도착하니 지역편이였다 나는 작전  
 과장에게 지시하여 환문장은 속히 서울로 호송케 하고 인천역단  
 에서 살아남은 총 인원수를 헤쳐보라고 하니 그는 말하기를 총인  
 원 26명이라고 하였다. 우리들은 밤으로 계속 행군하여 서울방  
 향으로 가는 동안 몇번 폭우고개를 겪었다. 유엔군은 인천에 상륙  
 한후 선전 기동 기지화부대는 대홍도로 우리를 유회하여 앞으로  
 쫓아나면서 김포비행장과 서울사이 높은 고지들을 다 점령하고  
 그곳에 기관포와 기관총을 걸고 지나는 미인군대들을 사격  
 하였다. 때문에 우리들은 대홍도로 접근하지 못하고 그와 떨어  
 지 있는 오솔길과 관목이선 늪풀이나 곡식밭을 밟으면서 서울로  
 행하여 갔다. 한곳에서는 산고지에서 큰 길에 나타나는 독포물  
 에 대하여 계속 기동소식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밭에 기어올랐다. 그  
 러나 고지에서 내려다 보면 공밭에서 기는 사람들로 확인하면  
 서 계속 공밭에 대고 기동소식을 하였다. 내 생각에는 우리들  
 은 이 공밭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였다. 다른 곳으로 더 유회  
 하여 돌아갈은 없었다. 우리들은 이 공밭에서 5명이란 전후  
 원을 얻었는데 그중에는 나의 직접부하 정희부부장이 전사  
 하였다. 나는 앞에서 가고 내 뒤에 연락병 신병철 중사가 가고  
 다음 중좌 정희부부장이 기다라 전사하였다. 사람이란  
 총에 맞고 이어 죽는 법이 없고 꼭 열타간 신음하라 죽는 법이다  
 나는 신병철어와 같이 그의 신음소리가 끝날 때까지 그를 떠  
 리고 기여 갈수가 없어서 죽은사람처럼 공밭에 가만히  
 누어 있다가 연락병을 시켜서 나의 손수건을 그의 뺨에다  
 덮어주고 다시키면서 그 공밭을 지났다. 내손에서 손수  
 건을 받으면서 연락병은 나에게 물기를 부부장 동지 손목에는  
 이국레 손목시계 새것이 있는데 그것을 꺼라느가 하였다.

나는 옥편소리로 레지탈라고 호칭을 최고서도, 다음 공연하  
 고령제하였다고 참회하였다. 우리가 일종의 전후원풍에는 흥신중대  
 흥신수 3명과 다른 전사 현행이었다. 참본장 김창희는 벌써  
 15 일에 복상 당하고 후송되였기 때 문에 남어지 인원은 나  
 의 지도하에 작전과장이 인출하였다. 우리가 서울에 도착하  
 였을 때는 17 일 오후였다 작전과장은 서울 전선사령부에서  
 400 명의 보충원원을 받아가지고 행군하여 의정부 동쪽현을  
 지나 연천서포으로 입진강을 건너 황해도 장흥군에 가서  
 되었다. 우리들의 전후의부는 여기에서 10일간 전후훈련을  
 한 다음 우리를 접두하고 다시나가 연천을 탈퇴할 의 무였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도착하자 5 일만에 서울이 떨어졌다.  
 나는 여기에서 최고사령관 한일우의 무전 명령으로 받고 칠  
 백명 전후원들로 2개 대대를 조직하여가지고 평북 문산,  
 대유등을 걸쳐서 신의주에 도착하였다 어때는 벌써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도 떨어졌을 때였다. 나는 신의주에서 부대를  
 인출하여가지고 압록강을 건너 안동시에서 전후원들을 기차  
 를 태워 작전과장 인출하에 중국을 들어 다시 만포에서 4일  
 도록 지시를 주고 나 자신은 자동차를 타고 계속 조선 땅  
 으로 압록강을 따라 만포에 도착하였다. 어때는 벌써 10월  
 말 중국인민해방군이 '항의원조' 표어를 들고 조선에  
 들어섰을 때였다. 이들을 가르쳐 중국인민지원군이라고 하였다.  
 나는 만포에 도착하여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연천 여단  
 전후원들을 해안방어 26 남포 여단장 강병학 대좌동  
 지에게 인계하여 주고 나 자신은 중국 동남쪽 한인 빈족 자치  
 현 연길시에 도착하여, 보병 32사 정치부장으로 가야 하였다.  
 나는 최고사령관의 명령대로 어지방에 도착하여 사단의 동기

1) 훈련을 끝내고 2월에 다시 사단과 같이 동부전선 철원 계선 제2집단군 최현 중장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여기에서 전투에 한번도 진입하여 보지 못하고 다시 최근 사령관의 명령으로 동쪽 남한쪽 동풍에 새로 조직된 조선인민군 항공 제1방사기 사단 정치부장으로 가게 되었다. 비행기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제1차 진공에서 완전한 실패를 당한 조선인민군은 새로운 항공부대들을 조직하여가지고 다시 남한에 진공하여 보려고 꿈 꾸었던 것이다.

1. 동쪽 상잔과 군인들의 가정.

나는 조선 상잔에 참가한 다음 자기 영호내에 같은 민족들의 상잔이란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비헤리리하게 느꼈다. 나의 다 성장한 아이들을 볼때마다 앞 행에 일찍이 조라가신 부인을 생각할때마다 마적도 가는 앞으게 회고 하고 있다.

내가 일하던 내각 지도관복합교은 평양에서 경치가 좋은 사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부락은 대동강변 절벽 바위무에 '림강전' 이서 있는 놀밭공원아래에 촘촘하게 들어앉은 부락일 한편에 역시 작은 놀밭공원을 끼고 앉았을바 바로 이 작은 놀밭기슭에 사동관복합교가 있었고 또 옆에 평양유악대혈이 있었고 그 앞으로 고지에 접근하면서 몇개의 방공호가 있었을바 이 방공호들은 일제가 만약을 위하여 석조로 잘 건설한 것이었다. 6.25 전쟁이 시작된 후 평양 감옥도 포격을 당하였다. 북한 내무성 각 행정소 지도관은 죄인들을 하는수없이 농촌도에 분산 시키는 한편 그야말로 특별죄인들은 여상과 같은 방공호들에 배치되었다

그러던차 유엔군이 북한에 입성하기 전날 일부 특별죄인들은 다시 평양 중앙형무소에 수용하여 홍살하고 이 방공에 남아있던 전체 죄인들은 그 방공호를 폭파하여 전부다 죽게하였다. 그후 평양에 유엔군이 입성한다음에 남한의 치안대원들과 지방인민들의 협조

외 에 의하여 반공호 내에서 사망된 죄수들을 파내어, 내각간부학교  
 방당에 백포를 꿰 놓은 위에 모두다 나란히 눕혀 놓았다.  
 다음 사동간부 학교교원과 노동당원, 인민군 복무자 가족들의  
 식구들을 억지로 불러다가 그 죽은 죄인들을 시켜내게 하였으며,  
 부분적 시체 주인들은 인민군 가족들로 하여금 그 시체들을 다른  
 기구를 이용하여 없어 흔적으로 소제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  
 소제원들을 구타하고 멸시하였다. 그 소제원들 중에는 연노화살 향  
 타버리 할터니도 있어서 인민군 군인들의 젊은 복인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잘못되어 두 계급으로 분류된 사람의 두뇌들은 멸시받았던  
 자들은 부러운 자기의 이전 명예를 회복하듯 하여 다른 부류에 다시 또  
 멸시를 주는 그런 인간으로서 저들의 용서할수없는 악행행동까지  
 하였다.

나의 가정은 당시 부인 처단나 29세, 딸 3 형제, 그중 장녀  
 도하-8세, 2녀-3세, 3녀-1세였다. 북한은 1946년에 평양  
 에 도착한후 평양 시내, 김대중에서 노어선생문 하다가 1949년  
 북한은 사동간부학교에서 노어선생도 겸하게 되었다. 내가 전선에 나가 라  
 시될 중순에 사동간부학교 정리부는 나의 가정을 화물차에 실어러  
 피난 식히노라고 형형강 이남 개천시를 쫓 밀어서 어느 농막  
 에 갖다가 복리외 놓고, 어떤 농촌 농가집 주인에게 허가를 받고 일  
 마 동안 있기로 하였다. 그러던 10월 20 일에는 평양이 췌러  
 리고 순천, 숙천에 유엔군 폭언 등이 들어왔다고 주인은 우리  
 가정을 가라고 지기였다. 숙천에 벌써 낙하산부대가 내렸는데  
 내일에는 어눈에 들어 온다고 하였다. 단나는 허는무없이 세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나갔다. 유숙하던 집에서 길가까지 약 500메  
 타되는 거리를 한살자리를 엮고, 세살자리 도시는 이끌고  
 또마는 걸으면서 땀을 흘리며 길까지 겨우 나오니 수백명  
 사람들은 악마들을 엮고 이끌고 하면서 모두 북쪽으로, 개천쪽

3.

으로 빨라질거라 생각했었다. 개천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도 하지만 세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려던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제일 큰 문제는 세살짜리 도아를 데다. 연약한 여자 몸으로 두아이를 업을 수는 없고, 세살짜리 아이가 걸으면 얼마 걸을 것인가. 다니는 길엔 적인만한 나무그늘이 없었더라면 다 같이 죽었지 <sup>4</sup>떠날 수 없었다. 어떤 피난민 처자가 말하기를 이 아이 하나는 내 딸이고 세살짜리 걸어가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 지금 호지개역대 남한여도 양감 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치안대를 조직하고 간부 가족이나 언 언 큰대 가족은 몽땅 학살한다는데 하고, 또 싸를 가르치며 저 풀밭에 내 딸이라고 하였다. 다니는 그 말을 듣고 또 싸를 그 자리에 떨어뜨리고 생각하면서 일어 서려고 하니 세살짜리 아이는 벌써 아래치고 치리끄리를 꼭 붙잡고서 다와하고 더 고압을 치고 있는 것이었다. 다니는 주저앉으려 생각하기를 참말 인간도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자식을 풀밭에 던지고 간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아어와 어머니는 알아 들었다. 김일성은 이런 동족 상잔을 야기 시켜 놓고 남한 감정에 실패 당하고 속회 하게 되자 평양 행무소의 정칙법들-조남석 이하 밖으로 다 총살하고 자기가 죽은 승용차에 실고 되날가리 안았는가? 아냐 그 뿐인가? 김일성 어화 각급 로당 기관, 각성기관 간부 들은 몽둥다 풍족에 되날보내지 안았는가? 그러면 되날가리 못한 수백만 원만군 가족 보충 로당당원, 각급 하급 당원 간부들의 가정 형편으로 생각하여 보았는가? 평양 행무소에서 죽은 사들 간부하고 방공호에서 죽은 각로에 배치되었던 최인근 누구나 다 사형하였던 그들에게는 자식들이 없고 친척들이 있지 않는가? 이들은 로당 당국원이 실패 될 경우에 총회까지

41

입헌군주국이나 로동당원 또는 아래 간부들의 가족에 대하여  
 자기들이 겪었던 고통을 복수하려 하였던 것이다. 로동당 간부들이  
 어찌나 쉽게 나왔는지 후회 시기에 후방에서 조직된 치안  
 대는 로동당원이면 모조리 죽어왔다. 어떤 로동당원들은 로동  
 당공화국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당공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단 나쁜 것을 믿을 수 없었기에 감옥에 들어 갔다가 치안대에 가서  
 불쌍하면 자기는 로동당원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상의를 통  
 당 배반이라고 하고, 어찌나 로동당공 주머니 끈 자리가 있  
 으면 (그 끈 자리는 2-3 일 어간에 인차 없어지치 않았음)  
 그 족성에서 아무질분도 없이 때려죽이곤 하였다. 이렇게 사탕  
 물 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놓고, 차별가  
 나, 변천시키 하는 적대적 사상으로 교양시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죽이도록 만들어 놓고 B.25를 시작하였으니 무고한 언변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으며 눈물에 고통을 겪었으며 또 오늘날도 그  
 의 열로 언변이 계속 눈물을 흘리느냐? 그러면 북한은  
 계속 무장 통일은 원원하지 않느냐? 그러면, 가정 무장 통일  
 이 된다고 하자. 그 무장 통일이 사람이 얼마나 죽어야 되겠는가?  
 전쟁에서 죽어, 차별자들은 죽어야 되고, 이북에서 남한에 월남한 사람,  
 반당분자, 친일파, 사대주의자 (근나라를 존경하는 사람) 지주들이 다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살 사람은 북한 로동당원들이긴  
 정말 어떤 엄중치한 모시고 현대말어 아보가?  
 그러나, 현대 말투가 날아치고 신사교가 변명하는 어시대  
 에 어떤 아버가 그런 제도를 좋아하고 할 것인가?  
 때때로 사실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면 한 민족을 두개 집단으로  
 분류하는 법도 없고, 즉 계급적 분열을 최소화하고 전세계적 실패를  
 당한 공산주의를 버리고 진실한 민족주의, 신사교 시대에 넘어가  
 면서 민족 자원을 제일 첫째로 내세우는 제도로 나가야 할 것이다.

5.

이렇게 죽으라고 던지자고 해도 던질 수 없고, 울지 말라고 때리면서 더 높이 노려주어 웃는 것은, 그를 살라고 세상에 태어 놓고 삼년 동안 굶어야 목어야 재태부던 그 아이를 죽으라고 풀선배에 던진다면 그 참담 자기 눈으로 죽일 수는 없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바깥 환경에 직면한 것을 알고, 큰 딸 또 나는 바바 바바 하고 나를 불렀다. 딸부는 계속 울고 앉아 있었는데 사 람들은 계속 걸어 꺾쳐서 북으로, 북으로 가고 있었다. 바깥 어때 에 집행이를 잡고 지내던 어떤 전사 한명이 딸부에게 물기를 왜 앉아 울기만 하냐고 하고 물으니, 딸부는 가라하니 아이 하나 때 물에 가라 못하곤 있다고 하니 그 전사분 또사를 데 켜 어느편서 어서 가라고 하였다. 이틀이 약 1000 리가 정도 걸어가니 군대 전원화 한때가 포를 쏘고서 차외에 수십명의 부상병들을 실고 물차 내킬로 겨우-겨우 올라오는 것이었다. 이때 또사를 안은 전사분 큰 길에 나서면서 높은 소리로, 차라 리 이 애를 죽어라 너의 들은 가라고 하니면서, 집행이를 내 놓았었다. 문전부는 문전하늘 차를 번치고 큰 소리로 불렀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렇지 아니면 부상병이 4가게 할 거야? 전사분 대답하기를 이 애들이 다 죽고 너의는 살아서 널한 단 말인가? 하니 차외에 왔던 전사 한명이 내리면서, 내 대신 그 아이들 두명을 실으 라 하니 또한명이 내리면서 전일된 포에 걸었으니서 시변해야어도 실고 어르러도 해 없다고 하였다. 부상병들은 전부 포다리, 포 대위여 때 달려 가면서 아무 말도 없었다. 그 후에 앞은 딸부는 개월 을 지나 하월까지 갈 수 있었다. 여기까지 도착한 문전부는 여 기에서 휘발유를 더 얻으면 내일 아침에 더 갈 수 있었어. 그렇지 아니면 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딸부는 하월을 넘어 아이들을 데리 고 저 멀리 산기슭에 보이는 초가집에 찾아가니 거기에서 쓰러져서

6.

갖어 나온 리슬백의 가족, 복원 류다를 반났던바 그녀는 별  
 2 일전에 벌써 여기에 도착하였다고 하였다. 류다에게는 아이  
 2쌍, 큰딸 스웨다 11살, 아들 슐타와 8살 을 데리고 있  
 었었다. 류다는 댄나보다 큰 큰집은 없었다 그러나 종족으로  
 넘어 가자면 만포까지 가에 되어서 자동차다 없어서 문제  
 었다. 댄나는 류다를 반났것이 큰 원척을 반났것보다 더 반갑  
 었다. 류다는 댄나하고 할하리를, 일없다 언제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니 댄나에게는 큰 어서어 생긴  
 것 같았고, 살길어 열린것 같기도 하였다. 류다에게는 훌백  
 이 가지고 다니던 권총이 있었지만, 류다는 그것을 보아면서  
 어떤 유언권 혹은 허나 들쭈름들어 오는것은 없지 않아서 생  
 죽일다고 하였다. 댄나는 그런 재간도 없었고 대담성도 없었다.  
 그 몇일후 댄나에 유언권이 상륙하였을때, 개천과 안쪽에  
 적어 들어 왔기에 특히 만포로 이동 하여야 되었다. 밤으로 하천  
 을 따라 되기때문에 들은 밤업게로 불구하고 큰길에 나가 지나  
 가는 차를 타고 가는두뺨에는 없었다. 밤에 자는 아이들은 깨워  
 도마가지지 세어이는 열여섯 어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으나 또  
 싸는 자는 깨워 앉혀서 뒤로쓰러지고, 앉혀서 쓰러진 하냈다  
 그러건 저러건, 댄나는 왜 작은 열라를 입고 자려고 하는  
 도사를 이끌고 큰길가에 나갔다. 수많은 자동차들은 길  
 을 끝까지로 실려서로 그위에 사람들은 태우져서 하나도  
 없후에고 하리 안았었다. 세월은 벌써 시월 날 열여섯 날새는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였다. 물고 들고 있는 시월에 댄나 화물차  
 한대가 멈춰 쏘았다. 운전수는 쫓겨서 어떻게 하고 가겠느  
 냐고 물으니 아크터니 두분은 어찌하면 해와만 두면가  
 가겠단고 하자 아이들 들어서 짐사에 앉혀놓고 자란이들은

71. 집을 불타고 나서 강계 고개를 넘어 만포까지 손을 얹어  
 씌어 떨어뜨려 아이들의 복음이나 살구라고 왔다. 만포에 도착  
 한후 만포다리로 그 건너편 도시 큰반역을 도착하여 중국  
 여성들의 검은 밤, 시락곡을 그려 놓고 부엌 집치에 가서 복히  
 먹이라고 하였다. 먹기는 고사하고, 장맛을 잔잔한 번차지 못  
 하고 떨어뜨리는 류다와 단추는 어디서 번방에 들어와 자라  
 고 하였다 그것의 러한귀를 지경어었다.



사선을 뜨고 살아 나온 딸 삼형제

또나, 또샤, 넬라, 양자 오정주.

응용화에 소중한 집을 다 걸어놓고 미안포에 도착한 김일성 아래 벼슬  
 아치들은 큰반역전에 들어세운 기차에 짐을 가득히 꾸어 싣고 기차를  
 타지만 류다와 단추는 아이들을 기차에 올려 태우니 짐이 전부  
 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북만주 할빈시 까지 도착하는 연이  
 일간 일정한역전에서 어의 상부에서 주물한 점심, 저녁을 먹으  
 면서 여행객처럼 실태가 할빈 역전에 도착하자 벌써 조직  
 배당하여 높은 적고 큰 여관들에 배정 받게 되었다. 여세불어는  
 죽을때까지 친형제처럼 맺어진 사랑의 형제 류다와  
 단추는 한집에 한칸에서 살게 되었다. 당시 이춘백 소  
 장은 제7 예비군단 군사위원으로서 아리 선내에 도착하여  
 동태고 사평시 지역에 군단과 같이 있었다. 그 지역에서 동기

8. 전후출현을 끝냈어고 3월에야 조국의 땅 석왕사 삼림속에  
 주둔하여 전선 예비로 있었다. 때론에 할빈에 도착한 류다는  
 남편 리룡백이 있는 사령소를 얼마나든 내왕할수 없이  
 피난한 가정들은 류다를 행복한 여자라고 하였다. 할빈에  
 도착한 북한 간부들의 가정들은 일정한 장악점을 내연당 계산으  
 로 국가로부터 받아 뽕뽕하게 살아갈수 있었고, 이 가족들  
 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선정복 대포가 여기와서 가족과 같이  
 있게 되었다. 여기와 있던 가족들은 1953년 4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 될때까지 여기에 계속있었다.



1950년 6월 25 상관 직전에 평양에서 찍은 사진인바  
 당시 딸나는 29세 (왼쪽) 류다는 31세 (바른쪽)였다  
 정전이되자 아이들을 데리고 각기 남편들을 따라 딸나는  
 호남산 정치군관학교 소재지, 류다는 강원도 석왕사, 제  
 7 예비군관 주둔지에 도착하였다. 1953년 4월 가을철이  
 돌아오자 아이들의 공부문제로 인하여 군관 가족들은 전부다

한곳에, 평양에 돌이게 되었다

단나가 모퉁산에 도착한후 평양에 나오기 직전에 우리 가정에는 큰 불행이 생기었다.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조인된후 최고 사령관 김일성은 8.15 해방 8주년 기념 행사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으로 인민군내 전후에 참가하였던 전체 근위사단 성원들과 각 전후들에서 명성을 떨친 부대들로 전후포함한 각 병종 군관학교 성원들을 백프로로 열병식에 참가시키기로 하였다. 나는 그 열병식 준비를 위하여 벌써 10 일전에 군관학교 학생이천여명을 기차에 싣고 평양에 도착하였다. 우리 부대는 송찬모부에게 정해준 동평양 비행장 부근에서 열병식 훈련을 하고 있었다. 8월 10일 저녁에 부대에서 송찬모부에게 목전이 날아왔다. 송찬모부 당직군관은 전화를 걸어 우리 부대 작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장교장가정에 불상사가 생겼으니 꼭 즉시로 집에 돌아오도록 하시었다. 나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경이나 되었리에 200 킬로미터 거리를 가자면 5시간이 걸리겠으니, 저녁 9시 경에야 집에 들어설것을 계획하고 작전부장을 불러 내일의 일을 꾸민후, 나는 작전부 부관을 데리고 헤어져났다. 자동차에 앉아가면서 집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 몰라 속은 더 우울시 벌써 훈련을 지나 개천에 들어가 직전 적의만 한 꼬래 길에 들어섰을때에 우리 자동차 앞으로 큰 여호 한마리 새끼 두개를 데리고 길을 건너 가는것이였다. 나는 권총을 빼들고 그놈들을 쏘려고 생각하다가, 산 짐승에게 나에게 해를 필요없는 해를 얹혀라고 생각하면서 그만두었으나, 그러지 않아도 불안하던 내안이 더 불안하게 되었던바 그것은 이전에 나의 아버지가 '알뜰함'시기를 남자가 큰 길로 갈때에 여호나 뱀이 길을 건너가면 뒤끝에 꼭 날 행을 할나게 되니 그것을 꼭 알아 두어야 하시었다. 나는 학생

101

각으로 자. 어젯봐라, 그러지 않아도 집에 불상사가 생겼다고  
 하여 가고 있는 길에 또 어젯은 무슨 불상사를 예고하는가? 그  
 델지 아니면 내가 아직 모르는가 하고 그 때 호새끼들이 나에게  
 제 알리는 판언가? 하는 생각도 하고, 여리가 바로 1950년  
 시월 축희시기에 땀나가 세아이들을 데리고 길가에 나가  
 앉아 울음을 울려놓고 어신가 하고 속마음 끌리는 생각을 하면서  
 온전수 터러 차를 빨리 불러온 하였다. 어느날 개천을 일는 지나 구창  
 을 모른편으로 보면서 산골이를 한두번 도나 바로 흥산 역에 도달  
 하여 모른편으로 돌러 모행산 골재기를 구비-구비돌아 첫 차단소에  
 도착하니 많은 예 잘됐다 차단소를 지나 부대 참모부에 도착하니  
 당직 규관은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 보고 밤이 막 끝이 대화동지 딸  
 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거기에서 부관과 같이 집으로  
 걸어가고 온전수를 자기꿈대에 휴식하라고 하였다. 집에 들어서니 십  
 일세 되는 큰딸의 시체를 큰방에 놓여 놓은 땀나와 옆에 집  
 규관 부인 12명씩이 앉아 있고 규의장이 나에게 지서한 보고를 하는  
 것이었다. 물레는 동리 아이들과 같이 지역감으려간 도나가 산골물  
 의 비속을 모르고, 해염칠칠 모른데 있었다. 아이가 물에 비하졌  
 다고 집에 갈때와 어른다운 근처에 있는 군인들이 강가에 달려  
 가니 아이는 벌써 깊은 물바닥에 가라앉았다. 아이를 짐지내어  
 놓고 인공호흡을 쉬어으나 물로 호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였다.  
 어떻게 땀나와 우리들은 그 전쟁의 어젯음에서 겨우 건져가지고  
 중국에까지 가서 내가 항공사단에서 복무할시 여러 끝에 다리고 단  
 나니 고생익히라가 조국당에 돌아와서 옛날하듯이 키우고 공부씩  
 해<sup>야</sup>할래신에 그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잃게 되었다. 산골물 비 성  
 격을 알려주지 못한 한이 겠지. 이러고 보니, 인제는 그 죽으라고 던지던  
 아이가 큰아이가 되어 인제는 50여살이 가깝아오며, 죽어이를  
 키워 싸우까지 살아갔어고 하뉴게는에서 잘 지내고 있다.

11.

나는 그 딸을 볼 때면 전쟁시기 일을 생각하면서 숙취감을 느낀다.  
 나의 부인 단나는 1985년에 64세로 세상을 마감하였다. 사람이란  
 되게 놀라면 뭐안어 생긴다고들 말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래서  
 원지 단나는 뭐안으로 신념하가 아직 아이들이 사는것을 보며  
 살수 없는 남이에 눈을 감았다. 나는 단나가 죽은지 십년여되나  
 날이 갈수록 그의 자태, 그의 땀씨, 땀성까지 날날이  
 귀에 들리며, 눈에 영상된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티 첫  
 부부는 하나님 이 지어준 쌍이라 이르느바, 아마도 그래서 항상  
 나의 맘과같이 사는 모양이다.

### 인민군 제 1 방사기 항공사단

인민군 항공방사기 사단은 아직 북한 역사에서 그런 비행  
 기가 없었다 그러나 이군은 벌써 낙동강 계선에서 불어 기쁜  
 항공 전투기재로 리용하여 자기 전투원들의 공격을 적기를 불어  
 없애며, 적의 공격을 능격하는 동시에, 적 전리와 그의 이동을  
 20. 배리 기관포와 로켓포로 포격 기총소사 하였다. 그러나 인  
 민군대에는 우리 방사기 항공사단이 1951년 8월에 전투에  
 출전하기 전까지는 없었다.

이항공 사단에는 오개 연대, 내 연대에 전투기 30 대씩,  
 60 대하고, 사단장, 부사단장 비행기들, 종합 62 대의 방사기,  
 훈련용 방사기 오대 역시 미그-17 있었고, 외에는 야크-18 들이  
 몇대가 보충 연습기, 혹은 연락용으로 리용 되었다 이 외에 사  
 단 편제로 보아 기술대대 1개가 있었지만 이 구별대는 전투  
 비행기들을 기술적으로 정비하며, 탄약과 연료를 공급하며 사단  
 전체 성원들의 침식을 보장하는 아주 중대한 전투원 집단이었다  
 본래 소련 전투 편제에 의하면 이 기술대대는 각 비행장  
 에 고정적으로 고착되었는 지상 근무원 집단이다. 만약 항공  
 연대가 전투 행동 목적에 따라 다른 비행장으로 이동하였을시

그 비행기들이 도착한 비행장에 있는 기를 대대가 그들을 정비 보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원군대에는 어떤 대대가 하나 없어서 때문에 우리 대대는 훈련 목적으로 항공연대들이 이동함에 따라 남만주 동풍, 안산 북경 주변 양촌, 요동반도 여순, 의주, 구성, 용성, 평양 등에 이동하였다. 이 기를 대대에선, 발동기 정비, 무장 정비, 통신중대, 경비소대, 운수중대, 공군중대 등 구분대로라 함께 취사선, 의발사, 세척원 양화수리공까지 있었다. 때문에 한번 이동하면 1년 2년의 화물 열차라 필요하였다. 그것은 특별기차들로 정비된 화물 자동차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전후부대 편제에는 사단장 강대용, 부사단장 김희경, 제 1 연대장 채극성, 2 연대장 강정덕, 각 연대에는 3개 대대, 대 대대에는 3개 중대, 대 중대에는 미그-17형 비행기 3대씩 있었다. 처음에 전후에 진입할시에는 (1951년 8월) 미그-15형으로 전후에 참가하였다. 12대 비행기는 37 미리포 1문에 포함 40개, 와 23 미리 기관총과 총알 160 발, 총합 200 발의 화력을 가졌고, 이외에 지상 근무원으로 참모장 이하 10여명의 기관과, 정치부장 이하에 8명의 기관이 있었다.

제 1 방사기 사단 비행사 60명은 전부 소련으로 유학갔던 유학생들이었다. 제 일차 공격 실패후 항공부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김일성사령관의 명령으로 소련 유학생들 삼행선 이상 학급으로 가장 전전한 학생들을 총괄하여 새로 조직된 방사기 비행사단에 보내게 하였다. 비행사들을 선출한 시간 내에 준비하기 위하여 소련으로 붙어 잘 준비된 기관들과 함께 소련 근무 항공 방사기 사단을 소련 삼중영웅 꼬제두브 사단장 대좌의 명솔 하에 파견하였다. 2월에 조직된 사단은 3개월 동안에 리론 상항들을 완료하고 5월에 북경부근 양촌에 이동하여 가서 소련 방사기 전후부대를 만나 낮이런 12대 비행기에 우리

비행사들은 올라타고 앉아 소련 비행사는 비행기 각 구조  
설명과 그리기능과 작용필요따라 설명하고 저번이던 계속  
이론 상해를 진행한 결과 6월말에 비행훈련을 시작한 결과  
7월말에는 비행훈련을 끝냈고 8월에는 함안주 안산 비  
행장에 이동하였다. 이 곳에서 우리 사단은 소련으로 귀향하는  
소련 항공병사기 사단, 사단장 꼬제브니꼬브, 정치부장 폴  
로 두힌에게서 전후기재들을 접하게 되었다. 이 곳에서 7월  
말에 전후기재 원계 연수 사업을 완료하고 항공사령부 왕련  
사령관, 리할 부사령관의 입회하에 소련사단과 동별연회를  
평양에 진행한 다음 우리 연대들은 하나씩 안동에 이동  
하여 나가 본격적으로 전후에 참가하게 되었다. 안동에서  
전후에 진입할시 소련 삼중영웅 꼬제두부 사단은 우리 전후  
부대를 전후제선에 호응하여 주고, 우리 비행기들에 대한 적  
의 침공을 막아 주었으며, 적의 위험한 우회공격에 대하여  
라지오로 우리 비행기들에 알려주곤 하였다. 이것이 우리 비행  
사들이 항공전에 진입된 초기기에 어렵게 하였다. 그 후 우리 비  
행사들은 한국인의 영리한 특성을 발휘하면서 무다한 적기  
들을 북한이 영공에서 추락시켰다. 제1연대장 테주성어는 공  
중전에서 8대나 추락하여, 공화국 영웅이 되고, 강철덕어는 6대  
항공 1사는 전쟁 2년 사이에 총합 적기 21대나 추락시켰  
는바 그중 12기는 8군 사령관 뎀 폴리호의 아들을 그의 아  
버지 생일날에 모범비행 전투에 나뉜것을 추락하고 포로 하였던  
것이다. 제1방사기 사단은 전후를 잘하여 최고사령관 김  
일성이 2차에 걸쳐 방문하였다. 항공 1사는 영예롭게  
공중전에서 위훈을 세웠지만 9월이나 공중전에서 전사하였다.  
특히 수치스럽던 일을 야기하였던바 정전 1개월은 앞두고

1953년 16월 말일경에 전후비행 모범, 중대장 상위  
 노급석여는 공중출연중 이그-14행은 하고 남한으로 할출  
 하여 김포비행장에 착륙하였다. 그 당시에 나는 벌써  
 3월전에 가서 김책 정치사관 학교 교장으로 전근되  
 었을 시였다. 나는 그 당시에 생각하기를 "참그놈이 그 막대한  
 이로구나, 조국에 변절하고 적에게 넘어가다니, 하면서 왜 나한  
 천병이로구나, 그 사단을 쳐부기를 잘했지, 계속있었어이면 철적  
 투형사리를 변치 못할것, 하였다.

그러나 지금와서 다시그때 실정을 분석하여 볼때 노급석 비행  
 사는 변절자가 아니라 할수없는 환경에서 자기 삶의길로  
 찾은 영웅적 걸음은 걸은 형편이었다. 얼마전에 박헌영이  
 와 이응엽 등 여러 남노당 간부들이 검거된다음 자리의 가장  
 친근하던 친구 이응엽의 아들도 같은 비행사로 있었으나 눈을  
 활짝떠 잡혀간다음, 노급석이든 함어벤 밤잠은 어둠리 못하고  
 어제 언제 나잠으려 오학하고 기다렸다. 왜 전 전쟁기간을  
 복수를 걸고 매일 갖어 싸운 노급석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노급석의 부친은 함흥 흥남공장에서 모범적 기사를 일하시  
 다가 자위대 성원으로 함흥 방어시 전사한다음 노급석  
 의 어머니는 집안일을 떠맡고 있던차 무언극이 후회할  
 시 그들이 4간후 함흥에 원자한을 전진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남한으로 나가게 되었다. 노  
 급석의 어머니도 볼래 남한을신어여서 그 끝에 친척도 있  
 고 하길래 남들을 팔아 남한에 나갔다. 노급석여는  
 전쟁 3년간에 무차 짐에다 표현지를 보내었으나 화답  
 은 한번도 못받다가 53년 정월애야 자기가 살던 리장  
 에게서 오는 화답에 아버지는 전사하시군 어머니는 월남하

시였다고 하였다. 편지는 노근석의 가슴속에 큰 어름강을 뚫지  
 았다. 북한에 살던 노동당원의 가족이 적을 따라 남한에 갔다는  
 것은 조국에 대한 변절론 인정받을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어서  
 나의 아들, 나는 그러면 꼭 철직, 제대, 정치범 수용소 앞길은 아득  
 하게 죽었의 길밖에 안 남아있다.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  
 기보다, 남한에 들어가 어찌나 만나보려 죽겠단 결심하고 사선  
 을 넘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근석이란 그르다고 하지 말고 북한의  
 정치제도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면, 노근석이는 영웅적 걸음을 걸었다고  
 평가해야 정당할 것이다. 항공사령부 간부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선대를 받았지만 이보다 더한 것은, 1982년 4월에 항공사  
 령부는 야간 여성 폭격기들을 리용하여 적진영에 폭탄을 조  
 성하여 계획한듯 정비행기 야크-18 형 2대를 준비하여  
 38 연선 북근 상리원 이남에 은근한 지형을 따라 적진 활  
 주로를 준비한 다음 소형 폭탄 200킬로식 적재한 다음 공화국  
 여성 비행사 영웅 해선희, 그의 가장 친근한 여성 비행사 중대장  
 상희 진을란 (해선희는 여성 비행사 중대장 대위) 등이 탑승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한 비행기 중 해선희 주도기가 이륙하지 못하고  
 약 500 미터 전진하여 강랑이 앞애가 떨어졌다. 약 10  
 당행어 비행기에 적재한 폭탄들은 폭발되지 않아 천  
 사에 반사적으로 하나씩 폭발에 폭탄은 구원할 수 없었다. 그런  
 데 쓰러진 비행기가 쓰러졌지만 강랑이 앞애가 끊어 버린 것만  
 해도 비행사로서 일생의 망신이었음, 다시는 비행장에 부하되지  
 말아야 될 대신에, 정반대로, 그 이튿날 아침으로 항공사령부  
 참모장 김원길 소장, 그 뒤에 항공사령부 비행복사령관 리활 소장  
 두 장령들은 최고사령관 김일성이에 보고하기를 "항공사령부  
 영웅적 여성 비행 대대는 대대장 해선희 대위 영도하여

영웅적인: 적진지 포격의무를 수행하고 자라 진지에 도라  
 왔습. 보고자 - 소장 김원길, 보고하러 들어갔던 김원길소장  
 과 리활소장을 대담한 기쁨으로 최근 사령관은 '맞이하고  
 따듯한 영웅으로 김원길 참모장, 리활복사령관을 품양으로 응급  
 식이인 해선희도 노좌가 되었다. 북한이 출판물과 라디오 방송은  
 하들의 용사들의 대성공이란 돌리하며 비행사들의 영웅성에 대  
 하여 연발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웅적인 해선희 대위는 아직  
 노좌의 전장도 알지 않은 자기 심심에 들어서 낮을 감추고 들뜨게 울고  
 만 있었다. 녀자들의 심정이란 아이들의 심정과 맞혀 혼자서로 무엇  
 어떤 잘달게 접수하나 외국항공을 잘모른다. 그런데 자기가 하지 못  
 하여 부끄러운 일을 겪어서 정한대로 나라의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  
 고 허위적 공훈에 표창까지 받게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  
 면 부끄러워서 웃을 수가 없었다. 진모란의 항위는 영웅이 되기 위해  
 고 구름대에 나하하지 않았다. 이런 형편에 처한 정치안전부장관  
 들은 진모란어부 해선희 보고 심문하게 되었으며 전후비행은  
 보장한 일부기술 근무원을 불러다 단화한결과에 사건은 대담  
 하다는 것이 해명되었다. 그후 안전부 계층으로 보고는 최근 사령부  
 정치안전부장 석산이에게 전달되었다. 석산이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최근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 즉시에서 항공사령부에 내리  
 갔다. 가던 참에 비행부사령관, 참모장을 불러놓고 조서를 쓴다음  
 해선희와 진모란어부 불러서 그 조서에 서명케 하였다. 해선  
 희는 후과에 대하여 겸손적인 대답을 하였지만 자기 심정상 같은  
 생각에는 차라리 죽는것이 없더라도 일생을 자기가 자기를 노기  
 고 살수없는 형편에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다음 이 사건을  
 최근 사령관은 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할하도록 하였다  
 몇일 후에 소집된 군사위원회는 항공사령부 전체 책임관부  
 사령관 왕권 이하 김원길 참모장, 군사위원 김태건, 정치안전부  
 장 박광선 정치부장 전부 철적 제대 식이인 다만 리활복사령관

이후 설립된 군사위원 김태건, 함모왕 김원길은 강박하여  
 아부 받던까지 내리갈다가 1954년 사삼검호시에 다시 과거  
 사건의 번러지면서 설립, 후속 처단되었던 이상 두분은 소련 출신  
 간부로써 한번도 권속비행장에 나가 본일이 없었지만 허복  
 이 보고를 그대로 접수하여 최고사령관에게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죄로 자기 목숨을 받았다.

이상과 같이 항공사령부가. 총난압을 당한후 항공사령관으로  
 한일부, 비행복사령관으로 리활, 참모장으로 모진우, 정치부장  
 에 모시현, 기술복사령관에 최한국, 군사위원에 최일 등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는 어떤이 있기 수개월전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의하여  
 김책 정치 사관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원천군 흥정치국의  
 관할하에 당시 정치군관학교가 주둔하여 있던 평북 함산군  
 일함산에 가게 되었다.

조선인민군 김책 정치 군관학교.



조선인민군 김책 정치군관학교는 맨처음 1947년에 평양과

남포 사이에 위치하여 있는 대한리에서 조직되었다. 인민군  
대성장 초기에 본 기관 학교는 조선인민군 각 병종 기관들을 준비하  
는 모체였다. 여기에는 각 병종 반들이 다 있었기에 따라 항공반  
까지 있었다. 초대 교장에 내각부부상으로 계시던 김책 선생이  
계셨기에 그 선생의 사후 1951년 봄에 김책 정치군관학교라고  
명명하였다. 정치군관학교가 조직된 후 교장들이 많이 교체 되어서  
나는 그 학교에 7대 교장으로 임명 되어 1953년 3월 봄에 1955  
8월까지 일하고 다음 항공사령부 군사위원으로 승급 되어 전근하  
였다. 나는 내가 항공 일사에서 김책 정치군관 학교에 몰려나  
정치학교에서 군사위원으로 갈 때에 이것이 모두다 항공 제  
1사 비행사들이 전쟁시기에 명성적으로 희생되어 싸운 덕택이  
라 이것을 충심으로 불러 돌아 나오는 사심없는 생각으로 결론 지었다.  
참 그 비행사들은 알으로도 자위조선의 진실한 역군이 될 것이었다  
그런데 그중 많은 비행사들은 소련에서 공부하였다는 죄로 한숨을  
당하여 지금 어떤 정치범 수용소나 형통조합에 가서 고생하고 있  
는지 알 수 없다. 유명한 비행사 강대룡 사단장은 벌써 내가 조선에  
있을 정치적 불신임자로 철거해야 되어 지질한 사대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살과 있는지, 또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정치학교에 도착하자 처음 강령을 검토하였다. 때는 발  
서 경전이 가깝다 오고 있어 전망 있고 각 방면으로 유익하고  
전전한 기관들을 준비하여야 하였다. 때문에 군사국정들과 전후론  
론, 군사과학과 어휘어 세계 군대역사, 세계사, 세계물리학 개념, 소련공산당사  
개념, 등을 중심으로 이런 기관학교 강령 8원 시간<sup>중</sup>에 영진역사, 조선  
로동당 투쟁사, 조선 정치 경제 지리, 조선 어문학 등은 어느정도 알맞게  
제출 하였지만, 맞아막 과목들은 자기 나라 것이기 때문에 학교 졸업후에도  
자기 열성에 따라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학습  
과정에 있어서 교장을 받들어 조선노동당사를 강이하게 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거절하였다. 나는 피수 시간 배정시에 교관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하였다. 과학이란 사람이 백과전술하는 법이 없이 어떤 전문적 과학을 연구해야 실정에 달하는 법인데 나는 소련에서 공부한 것뿐 소련공산당이나, 세계나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강의할 수 있어도, 노동당 후진사는 최신있는 전문교원들에게 뒤임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리시도 속생각에는, 내 말 새로운 거짓말을 보충하여 변경시키는 거짓말 역사를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한단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이 정당한 결론으로 인정되었지만 내가 항공사령부 군사위원직에 임명될 때에는 모든것을 뒤번져 전복적이므로 해독적 강령을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학교 편제는 일반적 연합부대 편제와 유사하여, 지휘관에게 교장 부지휘관 겸 참모장 겸 교무부장, 작전부장-겸 군사학 전문학부장 다음 령사, 경계 정치지휘, 어문학-노어까지 겸 등 부들이 있고 그 외에 정치부, 후방부교장 겸 후방 부부대장에게 속하는 문수중대장, 공급중대장, 양식부, 피복부, 재정 부기부, 후방 정리부 아래 목축장, 야채 재배 보장부 등 외에 2개의 학생대대, 홍선중대, 경비중대, 군악소대 등의 편제가 있었다. 이 외에도 상급 및 고급 정치군관들의 상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강습소가 있었으며 바 그에서도 약 백명의 군관들이 삼개월 기한으로 공부하였다. 나는 불학교에 교장으로 배치되자 이 강습소를 나의 군사상식을 제고 숙련은 강습소로 인정하면서 주로 군사과학에는 배려를 치 않고 참가하였다.

학교에는 고정적으로 11명의 소련인 고문관이 계셨으며 총고문에는, 전시에는 사감까지 전선 정치부장으로 계셨고, 소련 조국

전쟁후에는 모스크바 군사아카데미에 정치학 박사로서 계시던 모로코브 소장이 계셨고, 군사 고문에는 사단 작전부장으로 계시던 리보도브

종파가 제쳤다. 소련 고문들은 우리가 작성한 학교 교육 강령을  
검열하고 그에 해당된 총 시간들을 검열한다음 각 학년장  
들이 작성한 강령 내용들을 제 목별로 검열하였다. 그 외에  
그들은 자기 계획에 의하여 부분적 상학에 참가하는 한편  
야외 군사 훈련 시간에는 꼭 참가하였으며, 여유 시간에는 산골채  
기를 따라다니면서 산양을 하였다. 그 외에 호도밭과 주일에는  
평양에 계시는 총고문 라누야예브 상장과, 정치총고문 그리  
그리예브 소장에게 가곤 하였다. 그 후 1955년 부하 군대의  
사상 검토 사업의 시작과 소련 고문들은 한평생 두 평씩 자  
리를 쓰기 시작하여 1958년에는 전부 다 리룩하고 밟았다

내가 군관학교에서 일하는 동안 최고사령관 김일성이 두 번  
이나 학교를 방문하였다. 이번 전후 훈련을 강화할 때 대하여  
강조하는 한편 모항산의 자연 풍경의 특수성에 대하여 강조  
하면서 모항산의 자연은 아주 웅대하며 그 자연의 아름다움  
이 그리 웅장성과 짝어키어 한개의 병영지를 어루었다고 강조  
하였던바, 아마 그는 그 당시에 벌써 거기에서 혁명방물관  
을 열것과 자기 별장을 짓을것을 계획하였던 모양이다. 그 후  
전원민적 존경을 받으신 김주봉 상임위원장어 오셔서 높은  
고지에 놓여 있는 모항산에 가지 올라가 보셨다. 1953년  
7월 15일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북시에 북경에 부위  
원장이 학교에 태드 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어 군관  
학교에 올 때에는 총참모부에서 무권으로 알리게 되었는  
원일연지 이번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도착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모후 하시 짐강에 군관학교 전체 성원들을 야외  
구락부에 불러라고 하면서 당중앙 위원회 비밀표지기를  
것다고 하였다. 당의 지시기 때 물에 나는 그 즉시에 참모장제  
지시를 주어 다 물이게 하고 나에게 보고하라고 하였다.

병영대로 노천 집합소에는 군관학교 전원은 경비중대성원들  
 을 제외한 정부가 구분대 별로 붙었다. 나는 박정애 부위원장과  
 같이 집합소에 도착하자 참모장은 차렷 구령을 한 다음  
 박정애 부위원장을: "병영대로 경희군관학교 전원은 집되었습니다"  
 하였다. 대답 대신에 부원장은 손을 들고 전체 연원들에게 앉으  
 시켰다. 그에 따라 참모장 김용현은 "취맹" 구령을 즉각 전체  
 연원들로 알리게 되었다.

다음으로 박정애 부위원장은 연단에 올라서 자기가 가지고 온  
 편지 봉투를 꺼내며 그 봉투에서 빼낸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다.

편지 포레는 다음과 같았다: "허가이의 자살 사건에 대  
 하여" 1953년 2월에 자살적응지 포적 이후 허가이는 김  
 일수상의 지시를 거역하고 파괴된 적유지 지역에 책임적 지  
 도자가 지도하지 아니한 결과 근처에 살고 있던 농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다. 그 이후 당중앙위원회에서 허가이  
 한당적 행동에 대하여 취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해서 해명  
 을 요구하였던바 그는 해명을 준비하겠다고 하고, 위원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 이튿날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꼭 나오라고 하고  
 그 이튿날 즉 4월 2일 아침에 위원들은 다시 기다렸다. 그  
 런데 원일인지 그날도 허가이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일인지 해명하라고 그가 살고 있던 사택에 전화를 걸어  
 거기에서 대답하기를 허가이는 자살하였다고 하였다"라  
 고 한 다음 조국에 대한, 당에 대한 전체 연원에게 대한 벌  
 절자나, 조국전쟁의 업언을 시기에 중요직책을 맡고 국사  
 에 태공하였으나 끽 끽한 해독자 변절자나, 여러가지  
 든기 어려운 시간의 보충적 도덕에 용어 할수없는 말들을 당  
 중앙 위원장으로서 함부로 난발하였다. 노천 집합장소에

동업의 군중은 우선 지도간부들과 책임적 간부들은 모두 다 나  
 의 일과한 처다보(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허가  
 여가 소련서 4간 간부도, 또 내가 그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일어나서서 관중에게 물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으며, 알할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나는 한쪽으로 의심도 하나  
 서, 박정애도 소련에서 4간 간부로 왔지만 우리보다 7년을  
 앞서 - 1937년에 원동에서 사범전문학교를 조선(말)로 나감하고  
 4간 나란인데) 해병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도의지를 지고  
 왔을수 있느냐 하더라도 정치군관학교 교장으로써 포린지에  
 대한 결론을 전혀 자기 복해를 앞에서 내리야 하였을 때  
 문에, 이상과같이 말하였다. "허가이는 조국이 신임하고 높은  
 당적 국가적 책임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에서 동사  
 등이 괴롭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자기말은바 책임에 대  
 한 책임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변절이다. 나아가서, 그가  
 짐은 죄를 당은 그대로 관대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불렀으나, 그는 여기에 대하여 자살로 대처하였다는  
 것은 명예로운 무령 김일성 장군에 대한 열시적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관학교 성원 일등은 허가이든  
 포린지에 지적한(바)와 같이 반연(연)적, 반당적 행동을  
 간행했기 때문에 그를 공조(조)하며, 다시 한번 우리 당  
 의 정책을, 명예로운 무령 김일성 최고사령관의 영명  
 한 정책을 지지 한다는 것을 최고사령관께 전하여 달라  
 는 것을 우리 당 중앙 위원회 박정애 위원장께 부탁한다."  
 고하였다. 그 회의가 약 두시간에 걸쳐 끝난 다음 박정애  
 부위원장은 우리 군관학교에서 자고 여는날에야 평양에 돌아왔다.

나는 박정애 부의 원장을 떠난 뒤 몇시간후 역시 중앙으로 떠났던 바 그  
 점은 허가이가 자살할수 없는사실인데 왜그렇게 허리의 죽음을 하  
 였가 하는것을 따지기 위하여서였다. 경철을 만나 이야기 들으니  
 편지 내용하곤 전체로 단판이였다. 편지에는 아침이면 허가이가  
 일장초에 나가기 위하여 집에서 떠나는 시간이 되어서 자동차운  
 전수와 부인이 자동차를 타고 오래 기다려도 자기 방에서 만나오  
 기 때 문에 들어가 보니 허가이가 자살하였더라고 하였는데 경철무  
 예에서 들으니 부인과 운전수 2명, 간호장과 간호원, 열락병 2명은  
 고정적으로 그 집에 방에서 벽을 사이사이 놓고 살기때문에 밤에 그런  
 사고가 생겼다면 흉노리를 들었을것이고, 아침을 안먹었다면 왜  
 안자시는가고 검열할것인데, 하곤에 사는 운전수와 부인이 똑똑  
 이도 그집에 허가이가 못시켜 간것처럼 밤에서 기다렸다는것은  
 우선 어찌에 맞지않는 말이며, 뜰재를 아침 7시에 단크사령  
 관 최동덕 (허가이의 장인)께 전화하였기에, 최동덕 장군이  
 8시에 허가이 살고있던 집에 도착하니 어제 저녁까지 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허가이 시체는 없었다. 최동보는 본초병  
 과 다른 군원 2명이 있었으나 그들은 아침 5시에 새로 교체  
 되어 왔는데 그때에 벌써 여기에는 아무사람도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편지내용과 현실은 전혀 단판이였다. 최동덕  
 장군은 사실 허가이 맞사유 황금철이 나침에서 어제 아침에  
 출장왔기에 그와함께 어제 저녁에 허가이 집에서 저녁식사도  
 하고 밤 12시까지 었다가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아침  
 8시에 보니 단판이 되었다. 동덕장군은 허가이 집에서  
 김일성 사영광을 찾아서 작기가 직면하고 었는 황철  
 상세히 보고하고, 물었다: 왜 죽은 사람을 그렇게 급하게  
 밤사이로 장례하였는가 허가이는 적어도 죽기 모언인데 시체를

42.

다시 파내고 해부하여 국가검진 위원회 결론을 받아야 된  
다고 하였다. 그렇지 아니면 어떤 해독자로서 고이적으로 죽어  
였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어제 저녁에 그와 만나서 이야기  
하고 12시에 헤어졌다는 말도 하였다. 그 말을 들은 기일성이  
회집에 나오는 높은 음성으로, 작중하여 죽은놈에게 무슨 검진  
위원회가 필요하냐, 당신은 왜 거기에 갔는가? 하고 소리를  
치니, 최동익 장군은, 사람이 살아서 일할때에 수상님의 부탁  
지 죽든 다음에야 자식이나 친척들이 처리하여야 도리가 되지  
않는다고 물으니, 당신은 잡말을 말고 가서 썩물러나라고 하였다.  
권화로 이런말성이 있으면 최동익 장군, 연극 사령관은 철칙숙  
방리였다. 그후 또 3 일이 지난 다음 제군단장 정철우 장군도  
허가어 모직에 가따본죄로 철칙, 제대 되었으며, 차후 추방  
당하였다. 그런데 물레는 허가어 와 같이 일하던 문전숙 2명, 부관  
간호장, 간호원, 열락병, 회사원 들을 밝으로 전부 어디로 보내왔는  
가? 왜 허가어를 그렇게 조급하게 밝으로 물었는가? 모든 것  
을 분석하여 보면, 그 형편을 복견하지 않아도, 허가어를 암살  
하였다는 것이 확연하였다. 허가어 암살 이야기는 남도원과 같이  
나원에게 가았다가 조영양에 물러와 살면서,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있던 사람을 허나라도 밝고 극히 애를 쓰던중 3년이  
지나서야 문전숙 한 1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그 환경을  
직서히 밝히면서 자살이란 것은 재발할 거짓말이고,  
뒤에서 자동충으로 쏘서 죽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이사건에 대하여 1백세 명수종을 썼는데 자기 집에서 이 말이 나  
다는 것이 활로되니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하였다. 그때 물레  
12이야는 어물레를 공공연히 레기 못하고 다만 자기 형제들  
끼리만 알고 있다가 소원에 돌아온 다음에야 남도원도 말하였다.

조선에서 쓰달린이 끼로브가 제 17차 당대회에서 선거된 당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당중앙 정치위원을 선거할 때 쓰달린보다 구병어나 찬성후포를 더 받게 되었다. 정치위원회는 총비서를 선거하여야 하였으나 총비서는 정치위원회에서 보통선거로 선거하는 법이었다. 첫 정치위원회는 종전 정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쓰달린이 개회하고 누구를 총비서로 선거하겠는가 하고 물으면서 이 견을 제출하라고 하니 모르코니 끼로브 정치원은 말하기를: 후포누를 제일 많이 받은 끼로브가 총비서로 되어야 한다고 하니, 끼로브는 일어나 말하기를 쓰달린은 브.이.레닌이 추천하여 총비서가 된 사람인데 쓰달린이 계속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말하고 자기에게 대한 이 견을 취소한다고 제기하였다. 그제야 쓰달린이 또 다시 총비서로 선거되었다. 그 후 일면이 지나지 않아 끼로브도, 모르코니끼르브도 암살당하였다. 이것을 들은 김일성이는 쓰달린이 죽자 4개월이 지나 허가이를, 다음 박헌영이를 의욕으로 남한 이전 공산당 관복들, 다음 계획적으로 계속 간부잡이를 하였다.

나는 평양에 나가 함주동안 무그면서 쓰레서 나온 여러 동무들과 이야기하며 보았으나 누구든지 확정할 말은 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 최준덕 장군은 벌써 쓰레에 가고 없었다. 나는 학교에 돌아 오기 전에 최준혁 총정치국장과 김을규 부국장을 만나서 학교에서 긴급 시험 진행 정황과 각 대대, 중대, 소대들의 병사들 새로 건축하는 정황에 대하여 보았고, 박정애 부위원장의 내정에 대하여서도 보았다. 그러나 동리의 내용과 허가이 죽음에 대하여서는 입을 벌이지 않았다. 총정치국장은 정전단판이 녹여 조인된다는 것과 이번 815 명절은 광복절과 전승을 한데 끼기 위하여 성대히 쇠게 되니 잘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는 1954년에 김영 부상의 권유를 받았고, 1955년에 군사교육 국장 허봉학의 권유를 받았다. 김영 부상은 다음 군사과학 국장으로 내려 왔으나 당시 인민군대 간부들의 군사 정치적 수를 문화상식 적 수준으로 보아 가장 모험적 언물어였다. 또 체적으로 보더라도 언변으로 보아도 그러하였다. 중국서 나온 독립동맹 간부들이 몽땅 철산되는 바람에 황대와 천대를 기릴지 못하여 대동강 물에 빠져 자살을 하였다.

나는 1954년에 당중앙위원회 박영빈 선생의 추천에 의하여, 물론 총정치국장으로 합하여, 몽고 연립 혁명당 제 1회 당 대회에 인민군 대표로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표들과 같이 파견받아 참가하였다. 총 대표위원회는 31명이었으나, 단장에 당중앙위원회 리호순 행정부장, 감원도 도당위원장 김원봉, 다음 4가지 합하여 31명이었다. 우리들은 1955년 11월 28일에 북경에 도착하여 리영호 대사의 접대를 받아 2일 동안 북경 구경을 한 다음 11월 2일에 몽고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하였다. 이때 몽고 내각 수상은 지제젠발,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삼부가 있었다. 우리 대표단은 3일 동안 걸쳐 몽고 수도, 몽고 각도 (아이라크) 군 빛 농촌들에 돌아 다니면서 유목민들의 겨울 집차림, 가축들의 월동 형태, 몽고 산업 기업소들을 보고 동족 상잔으로 일어나 생겨진 고아들의 학교, 식당, 숙소 등을 구경한 다음 북한 대사 한일우 대사의 초청을 받아 식사로 같이 하였다. 대회는 3일간 계속되고 11월 11일에 몽고 연립 공화국 창립 기념을 맞은 다음 북한에 우리 대표단은 대회의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소련 대사 볼로도브를 방문하였다. 그 당시 소련 외무상 위렌스 기가 니우요르크에서 사방하였기에 축도의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서였다. 볼로도브는 소련의 시기에 수십년 동안, 내각 수상, 부수상, 외무상 등 직무를

쓰러진 사육 후르노브의 처여지 정책을 반대한 죄로 용고에 불려가  
있을때였다. 그는 전쟁 중년간에 얼마나 끔찍하였는가 물고 소련  
에서 다 돌아올래어라고 하였다 이때의 흥역원 역할은 내가 담당  
하였다. 나는 용고에서 보양산에 돌아와 몇일후 항공사령부로 전근  
되었다.

항공사령부.

내가 항공사령부에 도착하였을시 사령관 한일부, 비행부사령관 리활, 참모  
장에 오진숙, 정치부장에 모시현, 군사위원에 최학일 (박정애 부원장의  
사촌 오빠) 있었더라 내가 도착함으로 최학일을 정치군관학교 교장  
으로 내리 보냈다. 당시 항공사령부 편제에는 그가 관리하는 연합부대  
들로: 항공제1 방사기사단, 항공제2 습격기 사단, 항공제3  
경 폭격기 사단, 직속 여성경포격기 대대 와 전체 전후부대들의  
후방 보장을 위한 활력의 기술사단이 있었다.

6.25 상잔 초시기에는 전체 항공력이라고 할개 연대 전력량이  
있더라, 방사기는 전혀없고 소련제 프로펠타 비행기 야코브레-9  
전투기가 기본무장이고, 일-10 습격기 대대, 락-2 폭격기 대대 등이  
있었고, 연습기로서 야코-18 과 비보-2 가 몇대씩 있었다.

전쟁 내리에는 1사는 안동에, 2사는 봉성에, 3사는 공주성에 있다가  
말리에 선의주, 의주에 나와 있었다. 다음 정전이되자 1사는 울안에  
2사 내림, 3사는 충천에 주둔해져 있었다. 당시에 벌써 항공  
부대들은 기본 무기까 도덕적 마찰을 당하여 훈련은 하나, 필사준  
비태고서는 전투능력은 없었다.

최후 항공부대도 김형만의 지로하에 군대비 사냥감은 바란  
에 걸려 사단장 연대장들은 몽땅 갈리우고, 기본 실력부대로  
연정부대로 인정되던 항공 방사기 사단은 완전한 파괴상  
태 처해졌다. 기본원인은 소련사상이 농후하다는것과 자위주의  
적 경향이 심하다는것이다.

장학봉.



장학봉 채판나 부부 1967년.

1988년에 평양 "그레야" 출판사가 출판한 "영예로운 위훈"이란 책 제 92페이지를 열거 보면 "용감한 태들"란 제목하에 6.25 상잔에 참가한 비행사들의 업적을 그리면서 제 항공일사 비행사들은 하나도 없고 공중전 배경은 이고 비행기들이 공중전 경향을 묘사하였다. 그런데 그 배경 아래 공화국 영웅 4명을 전시하였는데 그 4명 중 이고 비행사는 한명도 없다. 그 네명 중 김기복은 9K-9 형 비행기로 용감하게 적기들을 추락시켜서 1950년 6월에 리훈훈이 베-29를 추락시켰다는것은 지니 빨간 거친말이고, 강승현 이와 김화룡은 신의주 상공에서 훈련 비행중 미국 비행기 사냥포 2대가 서해바다에서 슬러릿이 날아 들어와 라-10 비행기 4대를 떨어뜨리다가 2대를 추락시켰다. 제2사 비행사들은 신의주 상공에서 5명이나 추락되었다 그러나 적기는 한대도 떨어뜨리 못하였다. 도덕적 타격을 당한 남은형 발랑개비 비행기를 어떻게 최신행 식색사기를 떨어뜨리고, 공화국 영웅 메달을 그런 책을 망신 시키는 격이다. 근대내에서 김창만이 진행한 사냥포를 사냥은 백주에 한 것도 없다고 하는 모양이다. 역사적 사실은 소가지 못하게 되었다는데 북한이 출판물은 청진해방전후에 싹자도 아닌 오백용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도 주고, 양트스크에서 한생한 김정일을 백두산에서 한 생화였다고 거기에서 귀를 집까지 쥘어 놓고 선전하니 백성은 어떻게 그 날들을 접수하라?

사란이란 아무의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하여도 식충어 아닌이 상 자기를 받들고, 있는 국가 정책이 현명하리 못하고 겁어 어둡-어둡 하게 흘려서 배킨 모양으로 보이면 그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사멸되어 가는 법이다. 본래 그 정부가 들어섰은것이 아무런 유래도 없이 유력한 부들은 먼저로 물타치곤 25 소련군단장의 쓰달린의 승리를 받아 영웅적인것

이 두 힘은 믿음성은 없었으나 노련공산당 옹두머리였어, 조선에  
 나가 김일성이 큰 잘못이 전조선에 공산제도를 체득한 것이 기본목적  
 여타 하였기에 노련간부들도 누구나, 잘못비리며 떠버리 불란에 김일  
 성이 큰 대적항구 있었으나, 그렇게 하면 노련공산당 지시에 어긋  
 나기 때 불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온  
 각기 야망이 흐리기 때 불어 허가이 큰 육체적으로 제거하였다.  
 허가이가 없어진 다음 불어는 노련에서 나온 간부들은 벌써 마음어  
 식기 시작하여 그후 남한로동당 간부, 중국 독립동맹 간부, 박금철  
 리호준 선생을 위주로 한 지방 간부 청년들은 김일성이 북한 정치적  
 호대를 견고히 하느라 하였지만 그 정책의 대 일부는 그 정치적  
 호대를 뒤손 들어 굳어설게 하였어라 그 지도자에 대한 중요 값을 배가  
 하였다. 6.25 전쟁후 북한의 간부들은 끼리-끼리 짜고 매일 저녁  
 이면 불 추렴, 가르다, 화초등을 가지고 도박들을 하면서, 어쨌고  
 저렇게 야기 들어 뺏았기 때 불어, 이것어다 사상검논의 종파  
 사건의 근본으로 되었다. 1953년 7월 3일에 허가이를 살해  
 (안살) 하고 김일성은 노련에서 온 간부들의 원심력적 타격을 받았다  
 자기와 그렇게 친하던 사람을 죽인 일이 아무리 비밀적으로 했어고  
 해도 벌써 일년이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노련에서  
 나온 사람들은 직접 관계가 있기 때 불어 그것어 안살이란 것을 다 알게  
 되었다 만약에 그것어 안살어 아니고, 김일성이 주장하든대로 자  
 살이라 해도, 그가 김일성을 증오하여 죽였을것어지 좋아서 죽었  
 을 수는 없을것어 어쨌라, 허가이가 죽었다는 그 사실은 노련간부들의  
 반 김일성 사상을 발각시킨것어다. 누구든지 김일성이 큰 앞으로 계속  
 믿을수 없는 사람어고, 이 나라에서 살수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작식  
 했다 그 때 불어 해방된 북한에 가호것은, 그 해방을 위하여 그렇게 악  
 전고후하곤서고, 최대의 명예로 생각하곤 이제 불어는 내 조국에서 자호  
 만대 내티-내티 살겠다곤 생각하면서 가고서고 허가이 사건의

있던 뒤불어는 180°로 돌아왔다. 벌써 1953년, 학생들의 개혁  
 시기 불어 소련 출신 간부들은 100%로 아이들을 소련에 공부하러 보  
 내었다. 조선 학교에서 공부하던 아이들로 전부 다 들며,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원칙 없이,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고아들이  
 공부하는 함숙에, 소련의 각 도시 - 블라디보스토크, 하하롭스크, 노보시  
 비르스크, 모스크바 등에 보내었다. 부분적 가정들에서는 아이들 어  
 부나 어리기 때부터 북한까지 달아보내었다. 부분적 간부들은 코동  
 당의 "원자성곽 정당성" 믿고, 아이들도 공부시키고, 또 상상건초에  
 의하여 그 아이들을 데리고 협동농장, 광산에 나가게 하여, 2-3년  
 후에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원망"하였다. 이것이 김일성의  
 관대한 처사다. 그러나 그를 전인민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다. 주의라는 사상적 관점인데, 주의 중에서 가장 악독한 주의는  
 공산주의라고 이전부터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주의가 얼마나 자기 희생은  
 냈고, 또 얼마나 사람들을 버릴 수 있는가? 전쟁 초기에 연변로 제  
 13사 참모장 김학구가 작전지도를 훔쳐가지고 적편에 투항하였다. 그가  
 적편에 넘어갈 때에 다시 공산군 편에 넘어오려고 넘어간 것이 아니다 그  
 러나 정전이 확정되자 김학구는 밤사현 (황해도 도당 위원장)이 되  
 고서 포로 교환시에 입북시키면서 외국측 수석대동은 그들과 "말하듯",  
 세상에 제일 악독한 인간은 공산주의자인데, 당신들을 우리 측에 남게  
 된다면야 앞으로 우리에게 더 무익할 일이 없게기에 당신네 측  
 에 넘어가서 정당한 혜택을 받으라고 하였다. 사실 김학구가  
 적편에 넘어간 초기에는 그를 광쟁한 보물보다 더 소중한 여객  
 유엔 총회 연단에 초대하여 남침을 증시하였으나, 어제 정전  
 이 되고 보니 그는 한개 변절자, 다 쓰고 버리게 된 장판 걸레가  
 되었기에 그를 북한에 도루보내었다. 공산주의자 중 김일성 같은  
 지도자가 없었기에 인간은 어떠한 걸레를 내리었다.

나는 평양에 전근 되어 올라와 있으면서 여전에도 가까이 지우던 김일파 더 가깝게 되었다. 작문 김일은 서부전선, 남북은 공화국이었으나 가족은 평양에 있었다. 때문에 마호로 일붙어 일로일 양일은 거이나 같이 만나게 되었다. 전쟁전에는 전사한 안동숙, 박출이 우리 행배에 항상 같이 참가하곤 하였다. 허얼때에는 평산양도 같이 황해도 송화군 방방에 가곤 하였다. 이렇게 지내던 차에 1956년 신년 설날이 체코 협곡단 연회에서 작문 김일이와 연변군 총참모부 의사복장 전문흥이 징복이 없으면 몇달 지나 김일이는 철직 제대되고 나는 다시 김책 정치군관 학교에 가게 되었다. 김책 정치군관 학교에 가기 전에 총정치국장 최룡학상장은 말하기를 제나 집단군 군사위원으로 가라고 권고하였으나, 나는 집단군에 나가서 고생하기 보다 정치학교로 가면 하던 일이기 때문에 철하리라고 생각하여 그 단 결심은 하였으나 화후 그 결심이 흔들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왜 내가 어디나 다른 복대에 가지 않고 여기에 도루 왔는가 하고 자기가 자기를 꾸짖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큰 할아버지가 나에게 하 이르기름: (대 사람에게 길이 한번밖에 없는 나라, 하신 말씀은 되게 와서야 깨닫게 되었다. 사람의 늙어가는 것도 외길이고, 공부 하는 것도, 심지어 전승후 개성각을 열되 때 돌아오는 것도, 또 역시 환갑 되는 것도 한번이요, 죽어서 땅 밑으로 가는 것도 한번이다. 그런데 이 철학을 위반하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니, 내가 기대하였 것보다 정반대를 밟을지 몰라라곤 있었다.

후방부 심원들이 동성4가 휴일유 5호를 차량에 적재하다가 화재가 생겨서 전체 동성력이 동당 타면서 평양 강계간 전 화동화까지 오일 주철 식혀 최근 사병관의 추경을 받아쓰며, 재정과장이 평양에 나가 현금 72만원 을 따라갈 때에 생계가 생겼는가 하면 후방부에 화재가 나서 재정과에 있던 현금 17만원이 동당 타 버렸지, 제 1대대, 1소대 병사에게 화재가 생겨서 말성도 이르렀지 하여, 이런 저런 사고들의 여전 몸 건어간 예는 한번도 없었던 것이 어떻게 장막생기든지 빛이 수습할 나찌라 없었다. 이렇게 재비어의 자기 걸음을 꾸지르며 살아가는 터라, 중앙으로 불어오는

소식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불알케 하였다. 박창익  
 이 철직 강직된 다음 박영빈이 당중앙 조직부장이니 정치위원  
 이던것이 역시 철직 강직되고 그에 따라 박의완 부부상이 철직  
 강직되어 높은 형등조합에 나갔으며 당중앙 산업부장을 지내던 김희만  
 이 철직, 원빈은 해군 사령부 참모장 공화국 영웅 김철성이 철직 강직되  
 여 군사야기 제리아 수감생으로 보냈으며, 총정치국장 최종환이도 철직  
 되고 그 자리에는 김책 정치학교 정치부장, 함경북도 도당 위원장으로 지  
 내던 사람을 감다앉아 놓았다 나는 어린 환경에서, 사고 끝에  
 사고를 겪은 법학다가 결국 철직되어 1956년 가을 12고사포 사단  
 정치부장으로 평양부군 강서군에 내려가 약 6개월간 있다가 연변  
 군 최고 사령부내 포병사령부 정치부부장으로 평양에 올라와 약 1년  
 간 일하다가 권시에 라박상을 당한 척후와 오른도인 다리 화재상이  
 병중이 다시 재발되면서 괴롭게하여 용성 원그리아 야전병원에서  
 입원하였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일자리에 나와 약 6개월일  
 하자 모동당 중앙위원회는 "당내 사상적 불투명 분야에 있어서 교조주의와  
 관료주의 해독적 영향을 청산함에 있어서" 문제를 취급함에 있어서,  
 선전속 관부들중에서 불투명분야에서 활동하던 분들을 몽땅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하고 소탕하였던바 그판에 정상진, 전동혁, 기석복 그외  
 몇몇 명은 당에서 엄중징고를 받고 일자리에서 철직되어 또 어딘가  
 하부 말단에 내려가 부산계급-모동훈련을 받아야 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되자 이어 노련에 귀환할 수속을 노련대사관을 통하여 하  
 고 있었으나, 그들과 함께 그전에 벌칙 형벌을 받은 작은김일박  
 해철 등 8명이 동시에 노련에 귀환하였다. 이당시에 많은 간부들은 책  
 받음후 하부에 내려가던 죽음의 길이란것을 알고 말하기를, "참 노련  
 서 온 간부들은 행복하다고 하였으나, 그것을 갈래가 있기때문에  
 라고 하였다. 참 고맙기도 하였다. 사실 그당시에 벌칙 2년전에  
 하부에 내려간 사람들은 전부다 중병에 걸리거나 사망되었고, 가족과  
 아이들은 해방불쌍되고 남았다.

이 그루바가 떠나오자 나로 이어 귀환을 수속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수속을 신속히 하기위하여 당중앙위원회 리호준 행정부장을  
 찾아가 수상하게 나의 청원서를 드리곤 해결하여 달라고 하였다.

리호순 씨는 암씨가 취직하면서도 공명정당해왔다. 귀환 운동은 일찍 일어나고 버려져왔다. 다음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장께 소련국적을 회복하여 달라고 하면 귀국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소련 대사관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이 운동도 열개월 만에 해결되었다. 내가 떠난 후 당중앙위원회 박금철 위원장을 위촉하여 리호순 씨 및 기타 간부들은 반김일성 구테타 준비 모해로 처벌치위 철적 처단 당하였다는 것을 들은 나는 리호순 씨를 몹시 애도하였다. 나는 1954년 11월에 리호순 씨를 단장으로 모시고 북평시를 경회 봉고 연변공화국 연변혁명당 12차 당 대회 참가자로 갔던 일이 있었다. 대회가 끝난 후 봉고 연변공화국 창건 20주년 연회가 11월 11일 열렸던 바 이 연회 참가자로 우리 대표도 2명도 연회장에 오게 되었다. 연회장 정문에서부터는 제2전날 수상이 자기부인 러시아 여자 이리나를 앞에서두고 각 나라 대표들을 영접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대표들은 리호순 단장을 앞에서두고, 내가 제2번 차례, 김원봉이 3번 차례 순서로 서서 들어가면서 인사를 물리는 과정에 리호순 단장은 서양 예절은, 러시아 먼저 인사한다음 남자와 언사해야 된다는 원칙은 모르고, 제2전날 여자 - 부인 이리나를 뺀 들어가 먼저 제2전날하고, 다음 남자와 비서하고 언사한다음 돌아와서 이리나하고 언사하게 되었다. 이것이 서양도덕에 위반은 되었으나, 운백한 리호순 아버지가 동양 도덕 그대로 준수하였던 것이다. 나는 그 후 그와 그 이야기를 하니, 그는 '말하기를 참 별소리 다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그를 법대로 살고, 우리가 우리 법대로 살것이 어떤가? 하면서 어찌하면 서로 존경하고, 위법하지 아니하면 된다고 하였다. 박금철이와 리호순 두분은 참 씩씩하게 개끗하고 양치질은 순박한 간부들이었다.

1958년 7월 14일에 북한에 도착한지 13년 만에 현인들의 대대 손손의 덕이 보이며 있고, 먼저간 사람 등의 배제가 없으며 이리하여 현인들의 꽃이 필. 내나라 내족을 하직하고 눈물흘리면서 다시 북한에 귀국하였다. 소련 모스크바에 도착하니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부에서 조 조직부에서 먼저 불타기에 거기에 가게 되었다. 모스크바 소련공산당 중앙분부에 찾아가니, 우리가 기다

리고 있던 당신께 대한 평정서가 왔다고 하면서 내어놓은 것을 보니 조선 로동당 조직부에서 써보낸 나에게 대한 평정서였다. 그 평정서는 로어로 썼던바 그 내용은: 장학철이는 조선에 어느때에 나갔으며, 무엇을 하였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원무전설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조선인민의 조국전쟁에서 용감성을 발휘하였으며 공화국과 로동당을 위하여 영웅 무쌍하게 투쟁하였으나 맞아막 시기에 앞부분 돌아가고 있던 자유주의적 경향에 휩쓸려 조선인민의 전설적 영웅인 김일성과 그의 항일부대를 배방하는 반당적 반인민적 행동을 감행하였다. 그러하여 1956년 새해 설날이 연휴에이 이르렀던 싸움에 대하여 쓴다음 이렇 자유주의적 경향이 동북화이며, 상부에 존엄성이 약한 관계로 로동당은 광대히 취리하여 그의 요구대로 소련에 귀환시킨다고 썼다.

나는 평정서를 읽은 조직부 부부장께서 어떤 추종적 질문이 나왔겠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중 그는 말문을 하기를, 좋다 여쭙은 조선 로동당이 평정할것인데, 우리에게서 다른 계층으로 읽혀진 평정서도 없다고 하면 서, 나에게 물기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였다. 나는 대답하기를, 우선 부모들이 제시한 다슈켄스로 보내줄것을 요구한다음 그곳에 가서 사택보장과 나의 취직문제를 해결하도록 방조하여 주어야만 좋겠다고 하니, 그것은 대답하기를, 지금 조선과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운동이 임시적 정치적 운동인데 앞으로 조선으로 꼭 일하러 오도록 갈수있기 때문에, 약 3-4년 기간에 정치 사상적 과학적 상식을 더 보충하여 가지고 가는것이 좋을것인데당신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고 물는 날에, 나는 좋다고 대답하였다. 그는 계속 하여 말하기를 3-4년이 지나가면 강가에 불도 많이 흘러 갈터인데, 그나라들의 정치도 변할것이라 하였다. 그 다음 계층하여, 군대내 정치일꾼들에게는 정치수준을 높여놓것이 좋을것이며 다슈켄츠에 가서 중앙고급 당학교에서 공부는것이 좋게 다하고 한다음 다슈켄츠에 도착하면 당중앙위원회 조직부장 사파예브 에게 찾아가면 공부문제, 사택문제 경제문제까지 다 해결하여 줄것이라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소련부엌성 총참모부 간부부에 가보라고 하였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소련

무척성 간부국에 속아왔다. 거기에서 나는 제대비 3개월분과 일년  
간 군사 칭호비를 받을 데 대한 편지를 중앙아시아 군구 간부국 전달것  
받아가지고 하유겐즈에 나왔다. 하유겐즈에 도착하여 이어  
사형을 배정받았으며 복원의 취직문제 아이들의 학교문제를 해  
결한다음 9월 1일 러시아로 나는 당중앙 고졸당학교에 가게 되었  
다. 여기에는 벌써 일년 먼저 조선에서 추방되어온 작은 김일,  
기석복, 정상진 리훈백, (정월봉, 김용택, 박태섭, 송진화 등 등지들이  
벌써 수감하고 있었으며 차츰 나와, 잠철, 김철우가 도착하여 공부  
하였다. 조선 옛말에 - 다리 불러진 노루들이 한골에 몰인다고, 북한  
에서 제일 나쁜 일꾼으로 추방된 그 사람들이 어골에 돌아와 농토  
확 지고, 돈도 넉넉하게 쓰고 있으니 참 얼마나 행복하였는지 나  
는 지금도 생각하면 즐겁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한하여서  
는 나의 북한 처단나의 덕분이였다. 나는 "선혈"로 동당 약질  
분자들의 말대로 허바락에 내리가 12월 12일 해고생하다가 다시  
올라오리 하였으나, 나의 북한 처단은 그것이 절대로 안된  
다고 하면서, 안가겠으면 자기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간  
다고 하나 할 수 없어 북한에 왔다. 나같이 고지식한 김철우, 안철,  
장익환, 김철운, 허익 선생, 권일 등 등 동지들은 가족들과 같이  
영영 없어지고 말았다. 북한 역사에서 로동당의 지시에 따라 허바  
락에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 위에 올라온 사람은 없거나 한가?  
천만에 알뜰, 옛말에 보면 듣거나 좋지. 나는 참 북한덕에 죽은의  
한정에서 배려 나왔다.

나는 1962년에 당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7월 2일 불어 무르비  
크 공화국 경공업성 산하 피혁잡화공장 지배인으로 파견되었다.  
나는 이공장에 나와 일하면서, 생각하기를 아나도 식년 동안에  
강물이 많이 흐르지 못하였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던바 그것은  
내가 다시 조선에 가게 못할 경우와 조선과 중국에서는 한소  
위 등이 더한심하게 불어서 소공 국경에서는 전쟁까지 야기식  
키지 않았던가?

나의 적력에 내가 피혁제품을 만들어보지 못한 사관으로써 많이  
고민한 일도 있었으나, 공장도 대충이 힘으로 움직이고, 도도 그대풍

열성과 창의에 따라 결과적 승리로 볼것이니, 그뒤 권쟁이나  
 별차이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군중을 장악하는 문제, 대공리 열성  
 을 발휘하는 문제, 창의 고안에 대하여 관심을 돌리었다 군중을  
 장악하자면 사회보장 문제를 기동성있게 해결하면서 로동자 독  
 에서 핵심분자를 골라잡아야 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각분공장  
 책임자, 기술공정사, 기술 공정 건설원, 기술공정 창의고안 일꾼들, 기계  
 기술자들을 종" 봉여 놓고 평형교활화로 하여 선진 기술자들을 포상  
 하는 한편, 우수한 기술자들을 선발하여 노련지역, 어디나 제한  
 없이 3명, 4명씩 출장보내어 하공장들의 선진 기술을 도입케  
 하였다. 그와 함께 공안에는 피혁갑화 제품이 많이 생산되  
 나, 피혁으로 생산되는 운동기구들은 전혀 없었다. 그때 물에  
 축구공, 배구공, 야구공 농구공등으로 맨 들추 났은 기술자들을 중  
 속히 양성하면서, 피혁공장들의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신속  
 한 시간 내에 그 제품들의 견본을 정어 노련중앙 상품전람회  
 보내었다 그 결과 2-3년 내로 공장은 확대되게 되었다. 생  
 산 리돈도 높아졌다. 다음으로 운동복을 생산한다, 운동화를 생  
 산한다, 무엇보다도 체육에 관 모든 물건 - 고기잡이 끈들로 위한 천막  
 무엇보다도 약 100 종은 새로 도입 생산하여 국가에 리돈을 고조로 높여  
 벌써 1975년에는 새 공장을 150만 달러의 설계 예산으로 정  
 기 시작하여 1979년에 완성이었으며, 알지산 주에 새로 체육-물  
 등 시설품 공장을 새로 정었다. 이렇게 생산기업소가 확대 되고  
 공장 리돈이 높아지자 경공업성과 지역 행정 및 당기관은 우리  
 공장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에게 대한 관계도 꼭 다르게 되  
 여 내가 20여년간 공장 지배인으로 일하는 동안 계속 지방 및  
 시 소비회 대리원으로 정부적 범위에서 진행하는 큰 행사들에  
 거이나 다 참가하게 되었다. 나는 20년 동안 공장 지배인으로 일하였  
 으나 항상 관에게서 칭찬을 받고, 표창은 수차례 받았으나 책벌은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기간에 능동차는 3대를 교환하였으나, 운전수는  
 한번도 교환하지 않고, 20년간 한 운전수가 나를 배워가지고 단였다.  
 다음 두리다 년급생이 되어 일자리를 그만두고 서른 년급생으로 넘어갔다.





우르베르 공화국 경공업성 계획제품 생산관리국장 리.아. 치따린 씨가 나의 환갑연회에 참가하여 축하하고 나와 키스하는 장면.

나는 최대의 힘을 다하여 공장의 능률을 확장 제고시키고 그에 따라 공장의 위신도 제고되고 있을 때에, 강가에 물은 많이 흘러 어느덧 벌써 내날이 60이 넘어 70 줄을 잡고 있을 때, 즉 1979년에 환갑을 되게 되었다. 나의 환갑 연회에는 나를 축하하기 위하여, 상업관리국장 셰르게예브, 원료자재 공급국장 리블라지리크, 계획 산품 생산관리국장 치따린, 구역당위원회, 구역인민위원회, 공화국 상업성 제품물류품 관리국장 고관들 이외에 내가 일하고 있는 공장 직원들과 나의 친척 친구를 합하여 300여명이 참가한 연회가 되었다. 환갑에서는 우리 조선 예절대로 전체 나의 자식들, 손주들, 형제, 친척, 친구와 면담을 하기에 따라 술잔을 북어 올리고 절을 올림으로써 따뜻하고 애정 담긴 축하도 하였다. 이 가정 여백이 끝나자

러벤 측사들이 었었던바 제일 먼저 나의 직계 상관 경공업성  
 피혁 제복 생산관리국장 이먼저 연설하였다. 다음으로 뒤이어  
 가면서 다른 기관 대표들과 친구들이 연설하였다. 우리공장 기사장은  
 유즈베코 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예절에는 환갑에 걸하는법이라니  
 나도 절을 올리겠다곤 하면서 절을 하였다. 이렇게 환갑이 지난후  
 이년이 정리하자 나는 자기 직무를 기사장에게 인계하고 간부부  
 장 직무로 하고 복송기사 업무로 하고, 원로공급상급기사 직무도 수행다가  
 1987년에 40세 진급이되자 회직하고 사회보장으로, 연금생으로  
 나왔다. 내가 연금생으로 나오기 2년전에 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어생겼다. 조선 6.25 상잔에서 세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가슴저린고생을 겪으며 사선을 최치고 용행사라는 나의 복인 단나  
 는 그 전쟁이후 계속 위병으로 고생하다가 그병이 위암으로 넘어가  
 서 1985년 9월 29일에 하슈켄트 중앙내과병원에서 64세를 일기  
 를 세상을 떠났다. 나는 단나 앞에서 반듯이 직책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것과 그를 노여핀 일이 많으나 그는 압고생, 경저고생도 많이  
 하면서 나 아이들을 다 키워 시집장가를 다보내고 나의 부모들 앞에  
 서도 직책에 할일을 다 지키고 다만 일제는 아이들이 사는것은  
 코다란 영예로 보면서 행복하게 살수있는 그 날에 애절하게 세상을  
 마감하였다. 북한에서 사상검토 운동이 짚은 광풍이 공화국 전지역에  
 횡행하여 무신-무신하던 환경에서 물은 길로 찾아 나를 건지  
 가리고 온 단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아깝우랴.

연금 생활에 나와서 제일 즐거운 일은 재노 조선인들의  
 문화협회 조직을 위한 1990년 초 모스크바 창립대회였다.  
 53년 동안 인간 도덕적으로 진압되어 언격에 제대로 들리  
 못하고 전정환 인권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 재노 한인 대표  
 들은 모스크바로 달려갔다. 모스크바 모코자브리 대회실에는 삼백  
 명 이상이 되는 각공화국, 시, 주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이런 대  
 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모스크바 시에 살고있는 연노하신  
 남녀 한인 십여명 이상이 아무런 초청장도 없이 회의 진행되는 점수  
 실과 복도에 앉아서 한인 권리에 대한 새소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대회 휴식 시간에 그 북로 접대실에 앉아서도 노인들과 이야  
 기를 하곤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신 노인들은 전부다 할머니들  
 이었고, 할아버지는 한명으로 없었다. 그 원인을 다음에야 깨닫게 되  
 었다. 그것은 산탈린 시대에 한인남자들은 몽땅 일보스파이로  
 몰아 잡아가곤 하였기 때문이다. 부분적 할머니들은 모스크바에서 살다가  
 불운분자 가족이라고 집에서 내쫓고 아이를 데리고 남의 집 지하실에서  
 숨겨 살면서 어둠 집노예도 하고 빨래도 하여주곤 하던데서 목숨을 아껴 살  
 아 냈다고 하였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로 감출 수 없어서  
 참 자유란, 인권이란, 어떻게 가진 물건이냐 하느니는 필연히 느끼  
 게 하였다. 대회에서 언변자들은 인권을 박탈당한 한인 우리들이 강  
 제 어두운한후 어리-저리 불려 다니면서 닦아주는대로 자기 먹고  
 병 나서 길가에서 죽어서 되는 대로 좌불어 자리를 데우던 과거도  
 땅을 잃고 나라 잃은 백어동포들의 만류판판과 소련 원종에서 살던  
 백여년 천대 받은 우리가 오늘에 와서 문화 자치라고 가지고 인  
 간답게 살기 위하여 문화협회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호르라  
 중에서는 나트웨드라나 라는 여성이 라트비아 공화국 리가 국립  
 대학 역사학 박사였더라, 이 여성의 초본어 최강의 공기를 돌파시키  
 듯 새로운 문건을 내려고, 한인들은 문화 자치가 아니라 영혼도 포함  
 한 완전한 민족 자치로 가지어 된다고 영설하였더라 최강에  
 는 루케야노브 최고소베트 상임 위원장을 앉히게 하였다. 그녀라  
 의 증언에 의하면, 1937년 강제 어두 직전 약 3개월 전에  
 한인 자치구역에 대한 소련 최고소베트 정령이 있었으나  
 이 정령은 강제 어두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이제 와서  
 한인 영예 회복에 대한 정령이 있었던 어 자치구로 회복 되어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 당시 문건상으로 그런 정령이 생장하였던  
 지, 그 정령이 현실을 어루지 못한 원인으로 지금 와서 누구든지 나서  
 야 중앙 간부층에서 관심을 돌리지 않을 관계로 한인들은 부분적으로  
 그에 대하여 상기 시키고 있으나 별 전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대회  
 는 모스크바 국립종합 대학 역사학부장 박리하일 박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 위원회를 신기하고 각 공화국 등에도 문화협회를 조직할 것을  
 결정 하였었다. 그후 소련이 붕괴되면서 전연적 문화 협회가 국제문화

협회로 개조되었다. 그 당시에는 문화협회가 자기 규약 강령대로 사  
 업하였기 때문에 사립이 단속하였으나 현재에 이르러서 문화협회는  
 분산되어, 북한 정책을 지지하는 범민련, 조국통일촉진회, 통일 등 사회  
 단체들이 생겨 균형을 끌어 당기고 있으며, 그 대신 문화협회는 뜻기우  
 고 갈라지고 하여 빈약한 편이다. 유르베코스탄에는 그 후 항구막이 변하  
 여 "재생여단" 단체가 조직되어 문화협회와 힘을 합쳤으며 균선  
 협으로 문화 강령을 추진시킬 대신에 따로 단배를 타고 문화세계  
 를 가려하니 불쌍한 연변들은 "이런 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심  
 못해 곤란한 형편에 처하여 있다. 내 생각에는 두 동강이 난 조국을 통  
 일시키자고 노력하는 전 재소환원들은 이공 사회단체보다 통일시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통일된 뜻으로, 균선의지로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되겠다고 인정한다.

나는 1990년 6월에, 서울 문화방송 협회의 명의로 초청받아 가는  
 "조선공화국노인단"의 명의로 유르베코스탄에서 9명이 가는 중 한 명으로  
 한국에 갔었다. 나는 본래 북한에 조선군 소속으로 들어가 있다 가  
 조선군대가 철퇴될 때 조선국적을 접수하고 북한 공민으로 주로 조선인민군  
 소속으로 1958년까지 있는 관계를 북한은 잘 알지만, 전쟁시 대전, 인  
 천 서울에 가 있었으나 남한 형편은 잘 모르는 형편이었다. 나는 남한  
 으로 떠날시 나의 바램은 어느 정도 조민하였던데 그것은 내 자신이  
 남침한 북한 연변군의 한사관으로 되어, 그 남침의 사십주년에 제하  
 여 남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러나 나는 이전쟁에 당시 공산당원으로서 상부의 명령을 받아 참가하  
 였다는 것이 어느 정도 나의 맘을 알았석했다.

나는 사십년이 지나간 다음에 김포 비행장에 내려서나 내가  
 1950년 9월 중순에 인천에서 후회항해 지나가리 보면 그  
 현모는 영영 없어서이고 신기한 새로운 지역에 도착한 감은  
 늦었으며, 서울 시내에 가깝어 가면서 영등포 비행장을 볼으  
 나 그 비행장은 없어지고 여의도 새도시가 건설되었다고 하니  
 바로 문화방송 회사에 도착하게 되었다. 서울이 유럽 새도시가  
 되어 그 웅장성, 아름다움이 나의 마음을, 아나 우리 일행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였던바 그것은 우리 민족도 참 어렵게 굉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도를 갖고 있다는 장부임에서 심장길에서 출터 나오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일행은 서울에 도착하여 6.25 40주년 행사에 참가한 다음 수원, 대전, 경주, 포항 북산까지 가면서 곳곳에 건설되고 설비된 대공장들과 공업시설들은 거 경하는 한편 아름다운 대역있게 건설된 세도시들, 농장들 농촌들을 함내여 보았다. 참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인들이 손으로 다 아놓은 기적들이로구나, 생각하면서 어디로 가나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생동한 생활의 모습이 활기있게 나타난다고 내 마음을 다지었다. 우리 일행은 휴전 정세선도 보고, 개성 정전 단판 지역 관물점으로 보았다 우리 일행중에는 강상호란, 전복한 내무성 화장도 지냈고, 관물점 정전 단판 조종측 부석 대표도 2년 동안이나 지내신 당시 80고령에 정황하게 바쁜 손으로 관물점 회 실내에 양측에, 놓여있는 회전의자를 가르치며, 바로 저기 저기 리에 내가 몇년동안 앉아 일하였다고 하였다. 우리 일행은 서울 까지 돌아와 저녁에는 남한에 월천만에 달하는 수호를 살고 있는 이산가족 대표들과 만나 여러가지 담화 들어 있었다고 그 이튿날에 모스크바로 출발하게 되었었다. 우리 일행중에는 80세 넘은 노인들 이 다수 있었었다. 그들은 김포 비행장에 4가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이 적하면서 슬픈 눈물로 흘리었다.

1992년 2월에 나는 서울 중앙일보사의 초청에 의하여 한국에 가게 되었었다. 까자호 공화국에서도 정을 선생이 초청하여 나와 함께 가게 되었다. 그 때에 우리들은 중앙일보사 주선에 의하여 여러 가지 상봉들이 많은 중에 가장 길은 연상을 남긴것은 국제 인권호 한국연맹 김 위원장과 의 상봉이었던바 우리들은 김위원장을 통하여 재노고라이인 유가족들의 가장 앞은 불제를 해결하러 하였던 것이다. 그 아픈 불제란 우리 유가족들 중에는 40여년 경과하는 동안 북한에서 옥형당한 다 기 남프런어나 아부지리 증적을 모르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이 옥형당한 인원 451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면서 국제 인권용호 위원회와 유 민 통하여 내게 걸어야 달라고 권의 하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평상인 위원장에게 백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우리들은 그 좌석에서, 앞으로

유엔 기구를 통하여 우리 문예를 꼭 해결한다는 약속을 받고 나왔다. 1994년 10월 26 일에는 구국전선의 초청을 받아 디뉴켄트에서 91명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서울 올림픽 대회실에 28 일에도 도착하여 알게 될것은 대회명칭을 "북한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94 서울 대회"라고 1명 1명 한자로 알게 되었다. 대회에서는 각 사회 단체 대표들의 축사가 있던답에 조선 민주통일주국 전선 상임의장 박갑동 선생의 구국전선 기조 보고가 없던답에 여러 대표들이 호소문, 메세지 들을 낭독한다음 대회의 결이 문도 채택 되었다. 그런데 대회에서 아주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준 문건은 기조 보고 다음에 이복순 상임위원이 낭독한 "북한 동포에게 보내는 호소문"이었다. 그 호소문을 낭독할때에 장내에 계신 여러분들은 눈물을 감출수 없었으며, 우리 대표단 중에서도 아버지를 김일성에게 낚살 당한 허가이 딸 허리라, 역시 아버지를 북한 노동당 형제들에게 빼앗긴 김동철의 아들 김와설리, 김원길의 아들 김근베르트, 남편이 반김일성 현이로 처단당한 박<sup>남</sup>영<sup>남</sup>전선 위원 41명을 완전히 뚫노아 슬었다. 94 구국전선 서울대회는 대성황리에서 진행 되었으며 전체 참가자들이 지지를 받아 각기 목적을 달성하였다.

대회 어후에 구국전선 대회에 참가하였던 한국 경외에 거주하는 외국 대표들은 진주시 '민주열성자 사회단체, 문화 및 과학계 인사들의 초청을 받고 가는 길에 박갑동 선생의 출생지 상천군 단거리에 들러 선생이 탄생하신 집, 세움 영지, 여러채의 건물도 보고 또 선생의 고향친구, 친척들의 따스한 환영과 선물도 다득 받았다. 진주시 동방 여관 회의실에서 우리 전체 대표단을 위한 환영회는 제2 서울 대회와도 유사하였다. 박선생의 이전 서울고보 때, 동경 와사나 대학 시절, 이전 광안리의 운동장까지, 이전 남노당 총재로 계실 때 히망과 사선로 강어하던 친구들이 줄지어 나오면서 구국전선 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하고 보았직한 선물도 안겨주었다. 우리 들은 진주시에서 1492년 이전 왜란시 유사 길은 전설을 남긴 무뎌 돌리 내리는 남강 한바퀴 절벽에 놓여있는 옥석동, 또 그 아래에서 왜국 피투 한생을 끝내고 자기 목숨으로 입살너터운 적에게 죽음을 주어 영생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나라의 농신이된 기생 애국열사 주홍개 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위훈을 대대 손손으로 내려가면서 자랑하기 위하여 남강을 걸쳐 놓은 남강 다리 좌우 포연에는 콩개의 보석반지를 상징한 원형들, 이 모든것들은 이미없는 보훈사물언것어 아니라 한국인들의 피와

목숨으로 이루어진 자랑스러운 전통들의 유적들이다. 축석수는 남강을 끼고 아래로 불어 오를 때에 보면 청암 절벽에 물리 앉은 큰 동굴 같기도 하고 시가리에서 공원을 가로하곤 바쁜 길로 오를 때에 보면 구름속에 호대를 잡은 대 동굴 같기도 하다. 이 아름다운 축석수는 임진 왜란시에 진주사와 함께 왜적들에게 진주사원들이 영웅무쌍하게 항거한 결단적들의 손에서 두번이나 활취하는 전예 없는 권투의 요새였다. 때 물에 축석수로 들어가는 출구의 오른쪽에는 "밤행의 동산"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 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은 영원히 보호하리라."

이 글귀를 읽은 다음엔 이 언덕의 전 면모를 아라, 관람자들은 그 언덕의 땅을 조심스럽게 밟을 것이라곤 나는 생각하였다.

우리 일행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대전시 부근 문정리에 정거하여 하룻동안 묵으면서 한인들이 자택의 새터를 베풀어 준 약속을 정조하고, 독립방물관도, 또 에스(보) - 유(보)도 구경하였다. 참 에스(보) - 94는 한국이 달성한 과학과 기술 문화 등을 간단히 요약하여 전 세계의 민족적인 상영설이기도 하였다. 우리 일행은 전라북도 관동 4리에서 우리 조국이 달성한 기술에 대하여 만족감과 영예감을 느낄 수 없었다.

우리 일행은 조국 해방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조국 해방 기념관에서 박물관 상임의장을 앞에 세우고 기립하여 해방된 조국에 예절을 표한 다음 장엄하게 차려놓은 현관에서, 일제로 인하여 우리 조국이 해방될시에 일부 조선 국민들은 애국지성이린 영도자들의 지도하에 능양의 무리처럼 기여하고 있는 일제강점자들에게 투항할 수 없어 싸우고 있는 그 환영을 묘사한 사판을 보게 되었다. 이 사판은 위대한 러시아 군대가, 강권하여 들어오는 불란서 군대에 최병적하게 격을 주고 있는 장면을 묘사한 "보로진산고에 쓰라세니예" 사판(보로지노 전쟁) 과도 상사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대전 사판에 묘사된 일제대한 항거전은 위대한 영광 최위장군이 지도하였다는 것인바, 우리 일행의 관중들에게는 그 위대한 애국자 최위장군의 손자 허진씨가 계셨던 것이다. 허진씨는

사판에 묘사된 높은 곧 전후지휘소를 가르치면서, 바로 저고지에서 허위장군이 권축을 지휘하였다고 하신다음, 할아버지는 십배이상 넘는 적들의 압력에 의하여 북으로 밀리다가 어느한 전후에서 전사하시곤 나머지 군원들은 북으로 계속 후퇴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시체는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조국애국열사 묘지에 안치되어 계신다고 말한 다음 자기 할아버지의 위대한 공훈을 한국정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여 사후 전국훈장을 수여하였어라, 그 높은 정부의 포상은 할아버지의 직분으로서 자기가 받아 보람하곤 있다곤 하였다. 우리 일행은 방물편에 서 나오는 길에 허위장군의 묘지에 가서 돌아보았다. 구국권선 일행은 대전시에서 많은것을 보고, 많은것을 배우고 깊은 감상에 잠기며 서둘러 오는 길에 서쪽편으로 멀리 황해바다를 바라보며 달리는 배에서 뭍을 실고, 평면으로 무속으로 양향바다와 같이 넓은 광야 옥호에서 어찌 근방 후후를 끌면 배발을 보는가 하면 남고 높은 고지들과 푸른 소나무와 새발갈게 물들어 아름답기로 한 장엄한 큰산 영에 이르기까지 볼수록 폭은한 마음이 풀리고있는 아름답은 별장과도 유사한 농민들의 살림집들은 우리들의 정신을 배배 앓아가고 있었다. 산기슭아래에 집들이 몰박아 조밀하게 서고있는 출가에 우리 배에서 잠간 정거하였을시 구경참 농민의 정원을 들여다 보면 마담하고 은택스럽게 꾸러진 원채큰집 좌우옆에는 벽이 부러질 정도로 각종 곡식으로 적산 되어 있는 창고들이 있는가 하면, 정원<sup>뒤</sup>쪽 높은 땅에는 각종 과실나무들이 무거운 짐을 부리우고 쉬고있는 한편 아직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감나무들은 보기 좋고 맛좋은 과실들을 달아가지고 지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 의 눈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과 같아였다. 그런데 큰기화집들에 마담은 뒤죽박죽으로 적은 연적을 차지하였기에 나는 그 원인을 집주원한테 물으니 그는 대답하기를, 이공

땅은 매평당 높은 수확을 주기때문에 농민의 생활이 있어서 각 평방 메타  
 가 의미 큼니다 하였대, 매평당 수확이 10-15 톤 메타 수확되는 계  
 산으로 보면 매평당 35-50 킬로그램이 메타 수출되며,  
 매 평방 메타를 보면 1.2-1.5 킬로비, 쌀로써는 1.0-1.5  
 킬로그램이 수확되니, **돈으로 환산하면** 한 평방 메타가  
 일년에 5.0-6.0 달러의 미화를 주는데 왜 타당을 없  
 게 자리잡을 필요가 없겠습니까? 하였대. 다음 내가 혼자서  
 계산하여보니 농민은 일년에 오점반의 땅을 달구면 십만 달  
 라를 벌수 있으며, 수확고를 좀 높이면 15만 달러까지 벌수있을  
 것을 계산하였대. 그러니 매월농민의 소득은 얼마나 될것인가 대강 짐  
 작할수 없으며 그 반년에 북한 농민의 소득은 언제나 어떤 수준  
 에 오를것인지 생각만 하여도 속이 캄캄하다. 우리 일행은 최신  
 수준으로 건설한 한국의 고속대동로, 좌우로 세줄씩 끝까지 억울한  
 전같은 흰줄을 가루하고 농산물, 공업산품을 곡백이로 적재  
 하고 줄짐어 앞을 다축어 달리고 있는 화물차들을 보면서 어스  
 트 벌서 기아 자동차공장에 도달하였대.

기아 자동차공장은 "현대" 자동차 공장에 비하여 그 범위로 보아  
 능가하지 못하나 시간적으로 볼때에 이공장은 최신기술로 장비된  
 공장이며 아직 도덕적 마찰과 거리가 먼 최신행, 최신키다 자동차  
 들이 연달아 꼬리물고 나오는 계열식 기계공정 생산이다 우리 일행은  
 주조, 단조, 열색 조립공장등을 지나가면서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없는 생산 기계기술공정들을 자동기계  
 시설들의 호상 작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때 시간의 흐름이  
 어떤 과학기술적 변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상케 하였대.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라 물어본 결과 매월 봉급은 3천  
 내지 3천 5백 달러까지 된다고 하였으며 그 외에 실행하는

64.  
기술공력의 가치와 시간상 대노에 따라, 충감을 더 할수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신들이 생산하는 자동차 값은 얼마나 뛰어나고 볼모니 승용차는 약 7천 달러를 넘어 8만 달러까지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아 자동차공장은 가장 최신식 기술로써 장비된 공장으로서 앞으로 한국에서 가장 전망성있는 공장이라고 우리들 영내 한 기사는 말하였다. 공장을 떠난 우리 일행은 벌써 저북터지는 해를 서해 바다편으로 보며 별다른 달리인 것은 비버쓰 안에서도 고흥풍경이 둘러싼 흥겹은 맛을 느끼며 자동차 운전기사가 틀어놓은 비디오 무화기를 통하여 한계리, 한국 형제 자매들의 목소리, 들을수록 유성환 음성을 들으며, 진풍을 새로운 재료가 감동에서 피르히며 전 버리를 쉬우면서 어느듯 벌써 서울 "목산" 호텔에 도착하였다. 서해에서 내리자 "북한 인민화 협회"위원장 리영길 선생은 광고하기를: 내일 아주 중대한 초청들이 있으니 모두가 밤들을 잘 지켜라 하였다. 사실 그대로, 우리 일행은 아침 식사후 10시가 되자 서해를 타고 서울에서 제일 높은 60층 극회형 사에 가서 이주화 극회 위원, 유성환 극회 위원과 리한중 극회 총무와 만나 좌담회를 갖게 되었다. 자유롭고 지연스 법은 좌담회에서는 남한의 사회, 경제 발전에 관한 제문제들과, 남북한의 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통일방안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였다. 좌담회에서는 박갑동 선생과 어영길 선생을 비롯하여 구국전선 상무위원들이 다소 말씀들을 하신다음 그 고객들과 같이 점심식사로 같이하게 되었다. 점심식사 후에는 어영길 선생의 주선에 의하여 해외 동포모국방문추진회에서 주최한 한강에서의 약 2시간에 걸치는 배놀이도 강하게 무량하게 (하계)되었다. 우리 일행은 배에서 내리자 박갑동 구국전선 상임의장을 따라 국회 정은 회의실에서 김종필 대동위원과, 외부총일 위원장 나웅배씨와, 국회 대의원 박법진 씨와도 만났으며, 안전계획부장 남영식 선생과도 만

났다. 하지만 남에서도 한국이 전두환과 있는 국제적 정치 경제적  
 위신과 앞으로의 과업에서 꼭 해야 할 과제를 들어 대하여서 말한 것  
 으니까 조국통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조국통일은 꼭 평화  
 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것을 위하여서는 남북 대표들의 평화적  
 협상, 경제적 연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상호 상업교류, 연방기업소 등  
 설치와 이산가족들의 급속한 접촉문제에 대하여 전지한느론등이 있  
 었다. 라트비아가 계속되는 한동안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기관 등이 변정  
 되어 없애하여 주신 지역 식사로 갈아 타고 여러가지 기념품도 많이  
 받게 되었다. 우리 일행은 높은 인사들과의 만남이 끝난 다음 다시  
 목산 여관에 와서 막어막 송별의 하룻밤을 보내고 김포 비행  
 장에 나오게 되었다. 비행기에 몸을 실고 한강을 오른쪽으로 보며 공황까지  
 달리는 동안 문어진 한강다리를 통하여 영등포 비행장 다음 김포행장  
 을 거쳐 인천항까지 도로를 넘어 9월 15일에 대한병의 처지로 도보로  
 큰길 옆 모퉁길로 몇번이나 사선을 배치하여 서울 중앙청사가 들어오던  
 일들이 머리에 떠오른다. 서울 제2차 구국전선 대회에 대하여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박갑동 상임의장은 물론, 그러나 처음으로  
 구국전선과 공동전선을 협의하고 모든일에서 동참하여 주신 "북한인주화  
 협의회" 위원장 리영길 선생의 일이 얼마나 고마운지 잊을수 없겠다  
 고 생각하였다.

공황에 도착하자 비행장에서 내려서서 다시 동쪽으로, 서울 쪽  
 으로, 삼각산 쪽으로 도리키리 보이며 활막 북소리!

「한국아! 잘있거라, 미래의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  
 여서 영원히 전세계에 빛나라, 그러면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후손들도 명예감과 자존심을 얻으리라.」 외쳤다.

1995년 7월 31일 다뉴겐츠에서 장학봉